

9일 Market Index			
↑ 코스피	2427.08 (+5.46)	↓ 코스닥	802.87 (-8.15)
↓ 금리 (미국 9년)	3.847 (-0.021)	↓ 환율 (원/달러)	1310.10 (-0.50)

bhc 일등공신
박현중 회장 해임
각종 소송 부담 작용
02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11월 10일 금요일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재계 "기업·경제 무너질 것"

방송3법도 민주당 주도 국회 통과
與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총 "원·하청간 산업 생태계 붕괴
협력사 근로자들 일자리 상실할 것"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역시 여당 없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여당은 물론, 재계도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재계는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

으며, 민주당 내에선 이원욱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또 방송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법은 재석 175명 중 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76명으로 모두 처리됐다.

이번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노란봉

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하도급 노동자의 교섭권과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추진해왔지만, 국민

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를 고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방송 3법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지배구조 개편이 핵심이다. 공영방송별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 등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법안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야권 성향의 인사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의 사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을 준비했다가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소식에 막판 취소했다.

한편, 재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해왔다"고 비판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제로 구성되어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6면에 계속)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민간소비 부진 지속... 고용도 둔화 올해·내년 성장률 0.1%p 하향 전망

KDI '2023 하반기 경제전망'
설비·건설투자 부진한 흐름 지속
내년 취업자 21만명 증가 그칠 듯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우리나라의 올해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0.1%포인트(p) 내렸다. 내년 전망과 관련해, 수출 등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겠지만 민간소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할 것이라 견해를 냈다.

KDI는 이날 발표한 '2023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GDP성장 전망을 지난 8월 제시한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 또한 기존 2.3%에서 2.2%로 0.1%p 낮춰 잡았다.

내년 경제와 관련해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2%대 성장(2024년) 전망은 2023년 낮은 성장률(1.4%)에 따른 기저효과에도 기인한다"며 "경기 회복세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민간소비를 포함한 내수 증가세가 올해보다 더딜 것으로 봤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가 2024년에도 전년

(1.9%)과 유사한 1.8% 증가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내수 증가세 둔화에 따라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올해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32만 명 늘 것으로 전망한 데 반해 내년에는 21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실업률 전망치를 올해(2.7%)보다 0.3%p 오른 3.0%로 제시했다.

설비투자·건설투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수출 등은 완만히 반등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상품수출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서비스수출의 경우엔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높은 증가세를 지속할 것이라 예측했다.

KDI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및 중국 경제 등의 대외요인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여타 중동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할 경우, 생산비용 상승과 실질소득 감소로 경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으로 중국 건설업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실물투자가 크게 둔화할 시 우리 경제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커버스토리

공매도 전면금지에도 잔고 1.4조 늘었다

여전한 공매도

6일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금지 조치 전보다 73% 늘어
거래 상위 종목 에코프로株
한투연 "예외적 허용 없어야"

한시적 공매도 중단 조치가 시행됐지만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 주식 시장 내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적용된 시장 조성자들이 취지와는 다르게 대형주에 개입하면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잔고도 직전 거래일보다 1조4000억원 가량 늘어난 19조2133억원으로 집계돼 주목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3일 11조7871억원에서 6일 12조488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에서도 6조2511억원에서 6조7249억원으로 소폭 늘어난 모습이다.

개인과 외국인의 공매도가 제한되면서 전체 거래대금이 줄기는 했지만 기관 공매도 움직임은 여전한 것으로



7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와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뉴시스

보여진다. 6일 공매도 거래대금은 1975억원으로 코스피에서 326억원, 코스닥은 1649억원이었다.

특히 코스닥에서는 3일 951억원에서 6일 1649억원까지 증가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전이었던 3일보다 73% 가량 늘어난 것이다. 코스닥에서 기관 공매도 거래대금이 1500억원을 넘긴 것은 지난 9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는 에코프로형제주가 차지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금액은 각각 184억원, 195억원씩이다. 7일에도 170억원, 140억원씩의 공매도 거래가 발생했다. 2차전

지주 중에서도 에코프로 그룹은 올해 상반기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맹목적인 지지를 받으며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앞서 개미들은 공매도 전면 금지를 요구하며 2차전지주에 공매도가 물리면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공급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 예외로 지정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공매도를 지속한다는 것은 불만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여 '예외적 허용 없는 공매도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하은 기자 godhe@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조태용 안보실장 "한미일 3국 간 협력 중요성 재확인 및 공조 강화" (사진 뉴시스)
▲ 與 지도부, '현역 20% 공천 배제' 혁신안 보고받아...중진 불출마 논의 안해

▲ 국민의힘, 野 '탄핵·국정조사' 주장에 "넌덜머리 날 지경"
▲ 김한길 "국민 삶 넉넉하고 윤택하게 만들 불평등 해소방안 마련"



▲ 이낙연 전 총리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유효" (사진 뉴시스)
▲ 박진, 유네스코 총회 기조발언...부산박람회 막판 지지 요청

‘bhc 일등공신’ 박현종 회장, 해임... 각종 소송 부담작용

GGG 이사회서 만장일치로 해임
임금옥 대표 해임도 이사회 통과
“기업 명성, 브랜드 가치 강화”
bhc-BBQ 장기 소송전 영향도



박현종
bhc그룹 회장 겸 bhc그룹 지주사 GGS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bhc그룹을 이끌어 온 박현종 글로벌고메이서비스(GGS) 대표와 임금옥 bhc 대표가 최근 해임되고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bhc그룹의 지주회사인 GGS는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박현종 대표를 제외한 출석 이사 만장일치로 박현종 GGS 대표를 해임한 바 있다. 이번 해임 결정으로 박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게 됐지만, 사내이사 자리는 유지한다. 아울러, 임금옥 bhc 대표의 해임은 지난 8일 bhc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박현종 대표는 bhc를 10년 가까이 이끌며 매출 기준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로 성장시킨 입지전적 인물이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트그룹이 BBQ로부터 bhc를 인수할 당시 전문경영인(CEO)으로 영입

됐다.

그는 bhc치킨을 업계 1위에 올려놓았음은 물론,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bhc그룹을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와 ‘슈퍼푸드’, 한우전문점 ‘창고43’ 등 7개 외식 브랜드를 거느리는 외식기업으로 성장시켰다. 이에 bhc그룹은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보다 64% 성장하는 등 1조1100억원을 기록하면서 ‘1조 클럽’에 가입하기도 했다.

특히 bhc치킨은 2022년에 매출 5075억원, 영업이익 141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4% 올랐으며, 영업이익은 7.8% 줄었다. 영업이익이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28% 수준으로 경쟁사 BBQ(15.31%)와 교촌(0.58%)의 영업이익률을 압도적으로 앞선 수치다.

이처럼 그룹의 성장을 이끈 박 대표를 해임한 조치를 두고 업계에서는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GGG 측은 해임안에 대해 “대내외 경영환경에 맞춰 그룹 쇄신을 주려는 조치”라며 “기업 명성과 브랜드 가치 강화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향후 bhc 경영 방침을 두고 박 대표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간에 마찰이 빈번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bhc와 BBQ의 장기 소송전으로 인한 오너리스크가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도 있다.

박현종 대표는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 1월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과 주주들이 제기한 7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는 ‘BBQ에 27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았다. 이에 대한 이미지 실추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게 아니냐는 추측이다.

bhc가 현재 해외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오너리스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GG는 bhc 지분 100%를 소유한 지주사로, MBK파트너스와 다른 투자사가 4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박 대표도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배구조가 수차례 바뀌면서 지분이 희석돼 현재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hc 지주사·GGG 신임 대표로는 등기임원인 차영수 사내이사가 선임됐다. 임금옥 대표가 떠난 bhc 대표 자리에는 이훈종 사내이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훈종 신임 대표는 현재 bhc의 임원 선임 관련 내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전문경영인(CEO) 선임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bhc는 설명했다.

/신선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생활비 절감 신용카드 관심

물가 고공행진에 가계 부담 확대
삼성 ‘아이디올’ 최대 24만원 혜택
신한 ‘플리카드’ 무제한 0.9% 할인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계 부담이 확대하면서다. 캐시백, 할인율이 높은 가성비 카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3.4%, 3.7%를 기록한 데 이어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산물 물가가 13.5% 오르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소비자 입장에

선 이른바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셈이다. 이에 따라 가성비 카드가 주목을 받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4인 가구의 1개월 식비 평균이 10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매달 최대 11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아이디올(IDALL)’ 카드를 활용해 오프라인 물건 구매 고객을 정조준했다.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중 가장 많이 소비한 영역에서 월 5%를 최대 1만원까지 할인한다. 이어 주유, 이동통신 아파트 관리비 등을 월 최대 1만원 할인한다. 연간 최대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톡톡 마이 리빙카드’를 선보였다. 전월 실적 30만원으로 온·오프라인 쇼핑 영역에서 결제금액

의 15%를 포인트로 제공한다. 이어 대여서비스, 통신, 교육, 저점 등에서도 10~15%를 적립할 수 있다.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 오하체크’의 혜택을 강화해 새롭게 출시했다. 전월실적은 간편 결제를 통해 이용하면 20만원으로 업계에서 가장 낮다. ▲무신사 ▲지그재그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마켓컬리 등에서 5% 캐시백을 제공한다.

신한카드 이용자라면 ‘플리카드’를 눈여겨볼 만 하다. 신한플레이를 이용하면 전월실적, 할인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사용금액의 0.9%를 할인한다. 전월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월 최대 3000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생활권에 롯데마트가 있다면 롯데카드의 ‘롯데마트 앤 맥스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 및 롯데마트 맥스 이용 시 월 최대 10%를 할인한다. 월 최대 3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월 실적은 50만원과 100만원으로 구성됐으며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다.

카드업계는 생활비 절약카드의 경우 소비패턴과 주변 인프라 등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조언한다. 아울러 월 할인한도가 1만~3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만큼 고정지출에 따라 2장 이상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9일 “생활비 절약 카드는 전통적인 인기상품 중 하나다”라며 “과소비하지 않는다면 최근 높아진 물가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자 kimsan119@

“국제질서 위해 美와 긴밀공조”

尹, 블링컨 美 국무장관 관저 초청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사진)과 만나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한한 블링컨 국무장관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주었다”고 블링컨 장관의 방한을 환영했다.

이어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자 한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오이 게살 냉채와 가을 대추·밤 죽, 해물순두부와 호두강정 등 한식이 제공됐다.

이 자리에 우리 측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이 참석했으며 미국 측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 등이 자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대기업집단, 車·철도·운송사업 확장·재편

3개월 새 계열사 1곳 늘어 3084곳
폐기물처리 관련사업 재편도 활발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 소속회사 가운데 자동차·운송 등 계열사는 증가한 반면, 건설·부동산 등 분야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간(2023년 8월~10월)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9일 공개했다.

우선,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8월 3083개에서 11월 3084개로 1개사가 증가했다. 회사설립이나 지분취득 등으로 계열사 62곳이 편입됐고, 61곳은 흡수합병이나 지분매각, 청산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계열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3곳이었다.

〈2023.8월~10월 기간 중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2023. 8.1	편입				제외					증감	2023. 11.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계		
3,083	42	19	1	62	9	12	20	20	61	1	3,084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가운데 자동차, 철도, 운송 관련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 참여하기 위한 지분인수, 회사설립이 활발히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이 분야 12개사가 6개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들어갔다.

KG의 경우 전기버스 제조업체인 에디슨모터스 지분을 인수함에 따라, 그 자회사인 자동차부품업체 에디슨건강기차·에디슨엔에스오, 자율주행개발업체 에디슨에이아이, 전기차충전기업체 에디슨파워, 전기선박업체 에디

슨에스엠이 등이 KG 소속회사로 동반 편입했다.

현대자동차는 철도운송사업 운영을 위한 에스트랜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을 위한 지티엑스씨를 신설했고, SK는 물류중개서비스업체 굿스플로를 인수했다.

SK와 태영, 유진은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 관련 사업구조 재편에 따라 소속회사 변동이 활발했다.

SK는 폐기물 수집·처리업체였던 리뉴원을 합병 후 물적분할해 리뉴랜드정

/세종=한용수 기자 hys@

되풀이되는 금지 조치... 정치적 이해 벗어나 투자자 살펴야

공매도 제도 개선

공매도 전면 중단이 이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도 활발해지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만큼 국회에서도 관련 법제정안을 제출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의 효과는 하루만에 사라지면서 시장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수년째 공회전 중... 개미를 뿔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동 의청원에 등록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및 공매도 제도 개선 후 재개에 관한 청원'의 동의 인원이 3만명에 근접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가 이뤄졌던 지난 6일에 등록됐으며,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이미 2만9120명이 동의했다. 5만명의 동의를 얻게 될 시 국회 정무위원회로 회부된다.

개인투자자단체인 한국주식투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제도 개선 시늬만 하다가 공매도 금지 기간인 8개월이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과 모든 투자 주체들의 상환기간·담보비율 통일 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고,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확정돼야 내년 1월부터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0년 중반부터 제도개선 시사 일각선 선거 위한 포퓰리즘 지적 "증시 상승, 리스크 요인 따져봐야"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의 경우 2018년 정부가 2019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다. 당시 금융위원장이었던 최중구 전 위원장은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이후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언급했지만 2023년인 현재까지 지지부진하다.

또한,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다. 현재 공매도 상환기간을 살펴보면 개인은 90일로 정해져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인은 사실상 무기한이다. 외국인의 경우, 1년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호간 협의가 이뤄진다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담보비율 역시 기관과 외국인인 105%인 것에 비해 개인은 120% 수준으로 높다.

정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가 있었지만 공매도 제도는 별다른 개선된 점이 없었다"며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정말 특단의 대

주식 공매도 전면 금지 현황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10월1일 ~ 2009년 5월31일	미국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자 8개월간 공매도 금지
유럽 재정위기 2011년 8월10일 ~ 11월9일	유럽 재정위기로 글로벌 경제 상황이 다시 크게 흔들리자 3개월간 공매도 금지
코로나19 사태 2020년 3월16일 ~ 2021년 5월2일	코로나19로 폭락 장이 연일 이어짐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 목적으로 6개월간 공매도 금지 (21년 5월3일 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종목만 공매도 허용)
공매도 불공정 논란 2023년 11월6일 ~ 2024년 6월30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적발되어 제도 개선에 앞서 8개월간 공매도 금지

*공매도 =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뒤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값싼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

/뉴시스 그래픽

책을 세운다는 각오로 나서서 1400만명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도 '기울어진 공매도 운동장' 개선 목소리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제도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두 각각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투자자 주체별 상환기간·담보비율에 대한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될 시 처벌을 강화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제시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과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 자백·진술 시 형벌을 감면받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 등도 제출됐다. 공매도 전산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 담겼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것보다는 담보비율 등 투자자간 형평성 개선과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돌아오는 손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더불어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공매도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의 싸움이고, 장단점이 존재하는데 한국에서는 단점이 많이 부각됐다"며 "전산의 완비가 가장 우선적이며,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노린 포퓰리즘 현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중단 조치로 주가조작 세력에게 유리할 수 있는 판이 깔렸고, 오히려 개미들을 죽이는 눈가리고 아웅식의 포퓰리즘적 조치"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의제를 설명하면서 관심을 갖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있지만 총선까지 6개월이나 남았고, 이 효과가 6개월이나 지속되진 않을 것 같다"며 "이미 대부분의 효과가 소멸되고 있는 만큼 시장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진 않는다"고 평가했다.

◆증시 거듭날 수 있을까

블룸버그통신,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서는 한국의 이번 공매도 중단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스 마트카르마 홀딩스 분석가 브라이언 프레이타스는 "(한국의) 공매도 금지는 신

이 불법 공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될 때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전 세계가 고금리 상황을 겪고 있고 주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은행이자이기 때문에 내년 2~3월은 돼야 주가가 반등 기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공매도 전면 중단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게 되면 되려 국내 증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시행 첫날이었던 6일 코스피는 5.66% 급등했지만 다음날인 7일에는 2.33% 급락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폐쇄 경제가 아니고 외국인도 분명히 시장 참여자 중 하나인 만큼 경제적인 힘을 어느 정도 상실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대금이 조금 증가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활발해져서 영속성 있는 전반적 증시 상승이 이뤄지는 것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용택 센터장은 "이번 조치가 외국인의 이탈의 본질적인 요인은 아니라고 보인다. 미국 통화정책이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조짐이 보인다면 외국인은 다시 유입될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미국발 고금리 우려와 불안 요소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변동성 높은 구간에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공매도 전면 중단에 대한 효과가 1~2주에 걸쳐 가격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하루만에 반영된 셈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숏커버(환매수)를 통해 효과는 있었지만 그게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다른 리스크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격이 과거보다 크고 빠르게 반영된 뒤 본질적인 펀더멘탈의 방향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오션폴리텍

상선 교육생모집

교육비, 숙식비 등 전액 국비지원/훈련수당 지급

	상선 3급	상선 5급
모집인원	140명 (항해 70명 / 기관 70명)	60명 (항해 30명 / 기관 30명)
원서접수	2023.11.06.(월)~12.22.(금)	2023.11.06.(월)~12.22.(금)
교육기간	2024.01.29.(월)~12.20.(금)	2024.01.29.(월)~06.28.(금)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	서류 및 면접
지원자격	전문대졸 이상 또는 동등학력(80학점 이상), 해외여행 및 선원건강진단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해외여행 및 선원건강진단서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교육 과정별 중복 지원 가능

지원방법 kimft.recruitlab.co.kr



문의처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팀 051) 620-5773~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seaman.or.kr 참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Korea Institute of Maritime and Fisheries Technology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6명이 하던일 혼자서도 거뜰”... 스마트팩토리로 효율성 ↑

Q 르포

HD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

국내최초 설립 변압기 스마트공장
철심자동적층설비 투입 공수 줄어
IT시스템 기반으로 설비·공정 관리
작업 현황·할당량 등 실시간 확인

“이전에는 5~6명의 인력이 필요하던 작업이 지금은 자동화돼 1~2명만으로 수행이 가능합니다.”

지난 7일 방문한 HD현대일렉트릭 울산공장내 500kv 변압기 공장은 스마트 건설을 통한 생산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었다. 양재철 HD현대일렉트릭 상무는 스마트 공장의 철심자동적층설비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스마트 공장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다.

특히 스마트팩토리 고도화로 인력을 줄인 것은 무용한 인력 절감이 아니었다. 기존에 운영하던 인력들은 중신 조립, 총조립 등 다른 공정으로 배치해 공장 전반에 효율성을 더했다. 공장 내 작업자들은 전기 특성 시험을 진행하는 등 각자가 맡은 임무에 전념했다. 또한 로봇의 도움을 받아 작업자들은 이전보다 손쉽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지난 7일 HD현대일렉트릭이 ‘HD현대일렉트릭 울산 변압기 스마트 공장 투어’에서 철심자동적층설비를 소개했다. /HD현대일렉트릭

모습을 통해 스마트화된 제조업의 현장을 볼 수 있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지난 2018년 스마트 공장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스마트 공장은 침체된 시장 환경과 경영 위기 상황 속에서도 도전적인 결정을 내린 결과물로 약 800억원을 투자해 설립했다. 스마트 공장은 최신 제어 기술과 공정 기술 적용을 통한 공정 단축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의 스마트 공장을 체험하며 HD현대일렉트릭이 추구하는 제조업의 혁신적인 패러다임을 엿보았다.

공장문을 열고 내부로 발을 들여놓자 산업의 미래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차올

랐다. 거대한 이중도어와 간실로 구성된 공장문을 통과한 순간, 압도적인 규모의 ‘철심자동적층설비’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철심자동적층설비는 국내 로

봇 전문 업체와 공동 개발한 특수 설비로 변압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인 철심 조립에 쓰인다. 마치 로봇팔 같은 핸들러로 0.23mm~0.3mm 두께의 얇은 전기강판을 길이, 형상대로 절단하고 도면에 맞춰 절단품을 겹겹이 쌓아 올려 원형 형태로 조립하는 적층 공정이 자동으로 진행된다. 해당 설비 사용 이전에는 4~6명의 작업자가 직접 철심을 쌓아 올렸으나 현재는 1~2명의 검사 인력만 투입할 만큼 공수가 줄었다. 특히

야간에도 관리자 1명만 있으면 지속 작업이 가능해 제작 효율이 높아졌다.

공장 5층에 위치한 통합관제센터에선 IT시스템을 기반으로 설비와 공정 관리, 생산 현황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관제실은 무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어떤 시간이든 공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생산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담당자에게 알람을 보내 즉각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또 각 공정의 레이아웃을 통해 공장 내 변압기가 어떤 공정으로 제작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공장 내 작업 현황과 할당량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에어쿠션 시스템과 무궤도 이송장치를 활용해 각 Bay(작업 구역) 간 물류 이동 방법을 개선한 것도 스마트 공장의 특징 중 하나다. 에어쿠션 시스템을 이용하면 크레인 대기시간이 없어 효율성이 향상된다. 이전에는 약 20분이 소모되는 크레인 대기시간 동안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현재는 에어쿠션을 사용해 동시에 여러 장비를 옮길 수 있다. 에어쿠션은 최대 800톤까지 들 수 있다.

키오스크를 활용해 사용할 수 있는 3D 카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이전에

는 변압기를 설계할 때 2D 도면에만 의존하여 표준화, 상세화가 되어있지 않아 설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현장에서 도면 판독에 어려움이 있었다. 3D 카드 프로그램은 기존 설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모델과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며 특히 변압기 케이블을 설치하는 과정에 도움을 준다. 케이블은 합선 우려가 있어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나 리드선이 직선이 아니라 작업자들이 어려워했던 부분이다. 작업자들은 3D로 모델링 된 도면을 확인하면 케이블의 간격과 꺾이는 방향을 모두 볼 수 있어 합선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3D 카드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도면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생산, 조립, 설치, 팩킹, 고객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에러가 줄고 만족도는 올라갔다.

김주원 HD현대일렉트릭 상무는 “HD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 생산에 필요한 적절한 투자를 통해 수혜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해상발전소 시장 진출, 친환경 전력기기 시장 선점, 해외 주력 시장의 다변화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케첩·마요네즈 1분당 130개씩 만들고, 하루종일 카레향이 솔솔”

Q 르포

오뚜기 최대 생산지 대풍공장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통한 첨단공장
국내 분말카레 시장에서 점유율 83%
클린룸 도입해 엄격한 위생환경 유지

국내 식품업계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공장. 독보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카레’와 국민 소스 ‘케첩’ ‘마요네즈’가 생산되는 곳.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오뚜기 대풍공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9일 서울에서 버스로 두 시간 가량 걸려 도착한 대풍공장은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카레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다. 사무동을 지나 자동물류센터로 향하는 건학로 복도를 걸어가니 오뚜기의 대표 제품인 ‘3분 카레’ 패키지가 진열되어 있고, 건학로 창 너머로 생산 설비가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풍공장은 첨단 생산 설비 등을 토



오뚜기 대풍공장에서 오뚜기 카레가 생산되어지고 있다. /오뚜기

대로 생산 효율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2001년 8월 준공된 대풍공장(부지 10만4000여㎡에 건축면적 2만6868㎡)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HACCP(해썹) 관리, 효율적인 물류시스템, 인공지능(AI) 검사 시스템 등을 갖춘 첨단 미래형 공장이다. 지난해 기준 18개 유형 452품목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중량은 약 25만톤이다.

준공 당시 사무동 1동과 공장 2동으

로 조성된 이후 2004년 5월 레토르트, 즉석밥 공장 등을 준공하며 2018년 4공장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후 생산 연면적과 생산 품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종사자 수는 307명으로 시설 규모에 비해 인원이 많지 않다. 제조와 검사, 포장, 물류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높인 덕분이다.

오뚜기 대풍공장의 김혁 공장장은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통해 과거보

다 수율이 대폭 높아졌다”며 “수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이익 구조가 좋아지고, 결국 소비자에게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이 끝난 제품들은 박스 단위로 포장돼 레일을 따라 이동, 아파트 12층 높이의 자동물류센터에 보관된다. 각 제품에는 바코드가 표기되어 있으며, 바코드에 맞춰 기계들이 제품을 진열하고 정해진 날짜에 출고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오뚜기’하면 떠오르는 ‘3분 카레’는 대풍공장 8개 레토르트 라인에서 생산된다. 오뚜기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국내 분말카레 시장에서 오뚜기 카레는 약 83%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3분 카레’를 포함해 레토르트 시장에서 오뚜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89%에 달한다.

장기 보존 식품인 레토르트는 멸균이 핵심이다. 가압·고온 살균하기 때문에 보존료를 넣지 않고도 2년간 카레를 보존할 수 있다. 카레는 파우치 채로 121~

123℃ 고온에서 멸균 과정을 거친다.

오뚜기는 철저한 위생관리를 준수하고 있다. 회사 측은 “클린룸 시스템을 도입해 반도체 공장이나 병원 수술실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격한 위생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품질 안전 관리 시스템과 검사 장치 모니터링을 통해 품질을 관리한다”며 “회수 추적 프로그램(SAP시스템)은 원료와 제품 이상이 발생하면 원료부터 납품 이력까지 추적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50년 넘게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케첩’과 ‘마요네즈’도 주력 생산 품목이다. 두 제품은 각각 지난 달 기준 시장 점유율 91%, 79%를 차지했다. 대풍공장에서 300g 기준 1분당 130개씩 만들어지며, 기본 케첩과 마요네즈뿐 아니라 당을 줄인 ‘하프 케첩’, 기름을 줄인 ‘하프 마요’, 채식주의자를 위한 ‘소이마요’ 등 소비자 취향에 맞춰 다양한 제품을 생산한다.

/신원세 기자 tree6834@

서울·제주 면세점 부진 등... 3분기 11개 시·도 소매판매 감소

제주 -6.4%... 감소폭 가장 커

올해 3분기 전국소매판매(소비)가 전년 동기보다 2.7% 줄면서 6분기째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제주 면세점 판매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

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17개 주요 시·도 가운데 6곳에서 늘었으나 11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감소했고 전남(-5.9%)과 서울(-5.5%), 경기(-5.4%), 대구(-4.7%), 경남(-3.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는 면세점(-15.8%), 전문소매점(-8.8%) 등에서 감

소세가 두드러졌다. 제주는 지난해 4분기(-4.4%)에 소매판매가 감소로 돌아선 이후 올해 1분기(-4.9%), 2분기(-7.4%), 3분기(-6.4%)까지 부진한 모습이다.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국내 관광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울 역시 면세점(-36.3%), 전문소매점(-4.6%) 등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중국 정부가 올해 8월 한국행 단체관광을 재개했으나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성향이 예전과 다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역 소매판매는 지난 1분기에 소폭(+0.7%) 증가로 전환했다가 다시 2분기(-3.2%), 3분기(-5.5%) 등 하향 추세다.

경기는 전문소매점(-11.8%), 슈퍼·잡화·편의점(-5.9%) 등에서 1년 전 대비 후퇴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12개 시·도에

서 늘며 전국적으로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서울·경기 등 12개 시·도에서 증가했고, 3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2개 시·도에서는 보합세를 보였다.

가장 크게 증가한 인천(6.1%)을 비롯해 서울(5.2%), 광주(4.6%) 등은 운수·창고, 보건·사회복지 등에서 호조를 보였다. 이에 반해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숙박·음식점,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부진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



우리가 그리는 2030부산엑스포는 어떤 모습일까요?

2030부산엑스포를 통해
기후변화, 양극화와 같은
인류가 마주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주도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SK도
2030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與 혁신위 “비례대표 절반 청년으로”… 지도부는 2호안 ‘함구’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

3호 혁신안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정부기구·지자체에 청년위원 참여 반발 우려에 “더 큰 대의… 극복해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 경쟁 특별 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뒷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 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 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 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

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인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20%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을 9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해당 혁신안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거론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협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잡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덧붙여 권고 사항으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협지 출마를 요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포·서울 편입에 맞불?... 민주당, 경인선 지하화 추진

주민들, 소음·미세먼지 등 고통 호소 재개발 지연에 슬럼화 계속 진행 구로·인천·부천 시민 자족도시 재탄생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재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뉴스1

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

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

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의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

방통위, 가짜뉴스·허위 보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 내려 검사들, 범죄 혐의에도 처벌 안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위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패점검거

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유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 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회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

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인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경영활동 크게 위축되고 산업현장 혼란 겪을 것”

>> 1면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서 계속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 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건립 프로젝트

어린이가 있는 곳이라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기에
하나금융그룹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어린이들의 내일을 담는 어린이집을 짓고 있습니다



캐릭터 등 수집용 카드 붐물... 휴면카드 발생 속도 가팔라

카드사 8곳 휴면카드 1345만장
지난해 동기 대비 18.6% 증가
비씨 86.4만장... 29.7% 늘어
PLCC·캐릭터 카드 주범 거론



휴면카드가 지난해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카드사의 손익이 감소한 가운데 고객 이탈까지 계약재를 만났다 /뉴스시스

올해 휴면카드 발생 속도가 지난해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의 감소와 고객 이탈로 카드사가 계약재에 처해 있다. 휴면카드 발생의 주범으로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와 캐릭터카드 등이 꼽힌다.

9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3분기 전업카드사 8곳(신한·삼성·KB국민·현대·우리·하나·비씨카드)의 휴면카드는 총 1345만장이다. 지난해 동기(1134만장) 대비 18.6%(211만장) 증가했다. 휴면카드는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카드를 의미한다.

최근 1년 새 휴면카드 비중이 가장 높게 증가한 곳은 비씨카드다. 3분기 비씨카드의 휴면카드는 86만4000장으로 지난해 동기(60만7000장) 대비 29.7% 늘었다. 이어 ▲삼성카드 21.9%(31만8000장) ▲현대카드 20.5%(34만2000장) ▲신한카드 17.9%(31만5000장) ▲

KB국민카드 17.3%(28만9000장) ▲하나카드 16.4%(19만3000장) ▲우리카드 14.8%(19만5000장) ▲롯데카드 11.7%(11만7000장) 순이다.

휴면카드 증가는 수익성 악화의 요인으로 손꼽힌다. 신용카드를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자금이 수포로 돌아가는 만큼 매출비용이 커져서다. 통상 신용카드 한 장을 개발하기 위해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을 투입한다. 대형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1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업계에서는 휴면카드 증가 요인으로 PLCC를 지목했다. PLCC는 제휴 기업에 특화된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을 체결한 기업의 브랜드가치, 유행여부 등에 따라 사용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카드업계에서 PLCC를 선호하

고 있는 곳은 현대카드다. 현대카드는 올해 전업 카드사 8곳 중 휴면카드가 세 번째로 증가했다.

캐릭터카드 또한 휴면카드의 주범으로 거론된다. 캐릭터카드란 플레이트에 만화 캐릭터, 아이돌 등이 그려진 상품이다. 업계에서는 캐릭터카드가 결제수단이 아닌 기념품으로 자리 잡았다고 해석한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MZ세대 확보를 위해 캐릭터카드를 출시하고 있다”면서 “디자인을 굿 수준으로 높여 출시하다 보니 사실상 기념품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휴면카드는 지난달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한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휴면카드 관리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휴면카드가 증가할수록 카드사의 매출비용과 금융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휴면카드 정리 시스템 도입을 시사했다. 다만 카드업계에서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을 두고 물음표를 던졌다. 관리가 소홀한 만큼 과거에는 도용, 정보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정보통신(IT)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 문제는 사실상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2019년을 시작으로 디지털 고도화를 본격화한 만큼 정보유출 등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한다”며 “다만 김 위원장이 국감에서 휴면카드 해지 간소화 시스템 구축을 직접 언급한 만큼 이르면 내년 중에 소비자에게 선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oul.co.kr

대기자 수천명인데... 생보사, 규제에 요양시설 진출 난항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23.4만명
고령화·돌봄공백에 수요 급증
KB라이프 등 생보사 요양산업 진출
토지·건물규제에 초기 비용 부담



노인들의 요양시설 이용 수요가 증가해 입소 대기지만 수천명에 이르고 있지만 생보회사들이 요양산업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시스

요양시설 입소대기지만 수천명에 이르는 등 인기가 뜨겁지만 생명보험사의 요양산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다. 시설 개소를 위한 토지·건물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돌봄공백 발생 등으로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서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독거·무배우 노인의 요양시설 수요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노인 요양시설 이용자는 2014년 14만2382명에서 2022년 23만4280명으로 10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요양등급을 살펴보면, 3등급이 3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등급 32.4% ▲2등급 19.8% ▲1등급 9.2% ▲5등급 2.2% 순으로 나타났다.

송 연구위원은 “재가급여를 원칙으

로 하는 3~4등급이 노인요양시설 이용자의 약 69%를 차지한다”며 “이는 가족 내 돌봄 불가, 열악한 주거환경, 치매 등으로 불가피하게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한 인정자가 적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장기요양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속적으로 돌봐줄 사람이 없음’(74.4%)이 가장 높았다. 1인가구 또는 무배우자일수록 돌봄공백 발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송 연구위원은 “독거 또는 무배우 노인의 경우 돌봄공백 발생으로 요양시설 이용 가능성이 높다”며 “고령 1인가구 증가세와 함께 노인요양시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대비해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방점을 둔 요양시설 확충과 시설서비스 내실화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생보사들은 요양시설 개소 등 요양산업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규제로 인해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기 어렵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KB라이프생명은 업계 최초로 요양산업 진출을 공식화했다. 요양시설 개소 후 입소대기지만 수천명이 몰리는 등 수요가 높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전체 빌리지와 시설을 합치면 대기자는 5000명 이상이다”라고 밝혔다.

신한라이프도 2027년 서울 은평구에 실버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을 마무리했다. 또한 수도권 중심 요양시설 건설 부지 매매를 진행 중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부지 선정 관련해서 전

담 TF 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요양시설의 수요 급증에도 생보업계는 토지·건물 임차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부지나 건물을 매입하는데 드는 초기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요양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토지·건물을 소유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잦은 개·폐업을 방지해 입소자들의 주거불안을 막는다는 취지다. 특히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시설을 개소하려는 보험사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생보사들이 수도권에 시설을 개소하려면 부지가 몇 백억 단위여서 부담이 있다”며 “규제 완화가 된다면 다른 후발 생보사들도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보사들은 미래의 핵심 사업 측면에서 요양산업에 진출하려 한다”며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요양시설을 제공하면 이용자의 수요해소와 생보업계의 성장동력 확보에도 서로 윈윈(Win-Win)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현대건설-중부발전-KIND 美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 본격 착수

현대건설, 한국중부발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KIND)가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대건설과 한국중부발전, KIND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장충동에 위치한 엠베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9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미국 태양광 및 연계 발전사업 개발·건설·운영 ▲사업 수익성 제고 및 타당성 확보방안 모색 ▲사업 공동추진을 위한 정보교류 등 미국 발전사업의 동반진출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미국의 신규 발전 설비 중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46%(2022년 기준)로 10년 전 15%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 기준 미국 내 운영 중인 태양광 용량은 총 153GW로, 2028년에는 375GW, 이 추세에 따라 2050년에는 현재 대비 10배인 약 1570GW까지 확대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3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미국 태양광 발전사업 진출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개발단계부터 건설, 운영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은 오랜 기간 축적해온 세계적인 시공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의 개발 및 EPC(설계·시공·조달) 분야에, 한국중부발전은 국내의 다수의 발전사업 운영 노하우를 토대로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에, KIND는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및 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사업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자금 지원 등에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3사가 체결한 이번 파트너십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도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을 통한 글로벌 RE100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우리은행, 외국인 맞춤형 banking ‘우리WON글로벌’ 출시

17개 언어... 업계 최다 지원

우리은행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편리하고 쉬운 금융거래를 위해 맞춤형 모바일 banking 서비스 ‘우리WON글로벌’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우리WON글로벌’은 동남아 국가 대부분의 언어를 포함했으며, 은행권 어플을 통틀어 가장 많은 17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 스리랑카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미얀마어)를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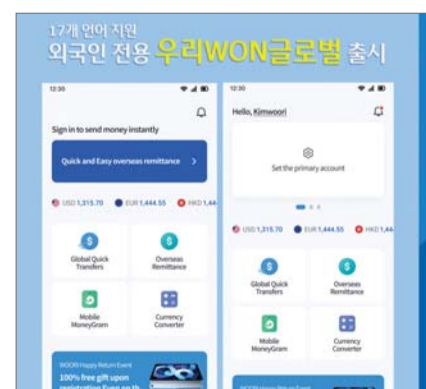
‘우리글로벌뱅킹’을 재구축해 출시한 ‘우리WON글로벌’은 외국인 고객이 많이 사용하는 해외송금서비스를 강화해 기존 서비스인 우리글로벌송금, 모바일 머니그램, 캄보디아WING 해외송금 외 ▲입금 금액이 즉시 자동 송금되는 ‘우리ONE해외송금’과 ‘다이렉트 해외송금’ ▲수취인명 및 은행카드 번호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우리는련송금’을 새롭게 도입했다.

또한 외국인 특화 비금융 생활편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비대면 ‘출국 만기보험금 접수대행’ 서비스와 외국인등록증 등기우편

배송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배송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WON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오는 12월부터 신규가입 및 해외송금 이용 고객 대상으로 ▲편의점 모바일 쿠폰 5000원(신규가입) ▲편의점 모바일 쿠폰 1만원(1회 이상 해외송금) ▲치킨 쿠폰(2회 이상 해외송금)을 각각 2000 명씩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추가로 한 달 누적 해외송금 건수 상위 10명에게는 배달음식 상품권 5만원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



인이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고객이 모국어로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WON글로벌’을 출시했다”며 “‘우리WON글로벌’이 외국인 고객에게 가장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banking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경제계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유감”… 대통령 거부권 호소

일자리 등 경영부담 주장
경총 “야당 역사적 책임 져야”
상의 “산업현장 질서 흔들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제계가 격노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이 같은 법안 처리 강행은 야당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꼬집었다.

노조법 개정이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

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경총은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제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멎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특히,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래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친환경소재 사업 로드맵 공개

“모빌리티 사업, 수소차 밸류체인 확장”

이차전지 등 미래소재기업 체질 개선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친환경 소재 사업 성장 로드맵을 공개하고 친환경 미래 소재 기업으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높인다.

지난 8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된 ‘친환경 소재 밸류데이’에 참가한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글로벌 사업 부문장은 “친환경소재 사업의 203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올해 대비 각각 2배, 4배 성장할 것”이라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계인 글로벌 사업부 문장을 비롯해 김병휘 친환경본부장,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노민용 사장과 기관투자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신설한 ‘밸류데이’는 주요 경영층이 투자자와 증권업계 전문가들에게 회사의 성장 계획을 직접 소개하는 IR 행사로, 지난 7월 ‘에너지 밸류데이’ 운영 이후 두 번째 자리다.

이번 행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부터 ‘친환경’을 성장축으로 선정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한 친환경 본부를 중심으로 사업전략을 수립한 이후 갖는 첫 대외 소통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친환경 사업은 크게 ▲ 친환경 에너지강재 ▲ 친환경 모빌리티 ▲ 친환경 이차전지 소재 ▲ 친환경 철강 원료 등 4가지 사업군으로 나뉜다.

우선 에너지강재 사업에 대해서는 2030년 223만톤의 판매 목표를 수립했



지난 8일 여의도 FKI 타워에서 개최된 ‘친환경소재 밸류데이’서 회사를 소개하는 이계인 글로벌사업부문장

다. 또 미국 해상 탄소저장소 개발, 말레이시아 해상 탄소포집 및 활용(CCU S) 플랫폼 프로젝트 수주, 에어 배터리 전문사 철강재 공급 등을 통해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모빌리티 사업은 수소차 밸류체인(가치사슬)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아울러 배터리, 부품, 모터, 차체를 통합한 패키지 수주를 계획했다.

구동모터코어사업의 경우 다중모터가 탑재되는 전기차의 글로벌 확대 추세를 반영해 2035년까지 약 6800억원을 투자해 ‘10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차전지 소재 사업에서는 2030년 35만톤 공급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이는 기존보다 10배 규모라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철강 원료 사업은 철스크랩 확보량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2030년까지 총 26기의 글로벌 수집기지를 구축해 포스코의 수요 전망치인 500만톤 공급 체제를 적시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철스크랩은 탄소중립을 위해 도입되는 저탄소 전기로의 필수 원료다. /양성운 기자 ysw@

롯데케미칼, 흑자전환 성공… 영업이익 281억

3분기 실적 공시… 매출 4.8조
첨단소재사업 등 수익성 개선

롯데케미칼이 6개 분기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롯데케미칼은 연결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2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를 기록했다고 9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81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3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사업부문별로 보면 기초소재사업은 매출액 2조5829억원, 영업손실 242억원을 기록했다. 수요 약세로 매출이 소폭 감소했지만,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의 긍정적 레깅 효과 및 가동 효율화로

수익성이 개선됐다. 롯데케미칼 측은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 원료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향후 공급 부담이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첨단소재사업은 매출액 1조684억원, 영업이익 755억원을 거뒀다. 계절적 성수기에 따른 판매 물량 증가로 수익성이 개선됐지만 4분기는 계절적 비수기 및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 영향으로 수요가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롯데케미칼타이탄은 매출액 5564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올리며 유가 상승에 따른 원료의 긍정적 레깅 효과로 수익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료가 불확실성

및 수요 회복 지연으로 약세 시황이 전망되나, 가동률을 최적화함으로써 수익 개선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LC USA는 매출액 1213억원, 영업손실 160억원을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하락했지만 원료가 하향안정화 추세로 4분기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케미칼은 “급격한 국제 정세 및 화학산업 변화에 맞춰 기존 사업은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확대 등 수익성 최대 확보와 효율성 최적화를 추진하고 전지소재, 수소에너지 및 리사이클 사업 등은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韓, 중요한 시장… 김해~헬싱키 노선 취항 최우선 과제”

핀에어 창립 100주년 기자간담회
“대규모 투자, 네트워크 확장 지속”

핀란드 국영 항공사 핀에어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시아시장 점유율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핀에어는 한국 시장 중요성을 언급하며 잠정 중단된 김해~헬싱키(핀란드) 노선 취항 준비와 함께 한국인 채용도 확대하고 있다.

핀에어는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핀에어 창립 10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핀에어는 한국 시장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점유율 확보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핀에어는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올해 6월 흑자전환을 이뤘으며 현재 인천~헬싱키 노선을 주 7회 증편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



(왼쪽부터) 김동환 핀에어 한국 지사장, 올레 오버 핀에어 상용 부문 수석 부사장, 엔니 수오멜라 핀에어 글로벌 세일즈 & 채널 운영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이나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 영공 폐쇄를 딛고 이뤄낸 해거라 그 의미가 깊다.

올레 오버 핀에어 상용 부문 수석 부사장은 “차별화된 고객 경험 제공을 위한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 확장 등의 전략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며 이러한 기초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장은 “러시아 영공 폐쇄로 인천~헬싱키 비행시간도 45% 가량 늘어난 상태”라며 “한국 시장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으며 상황만 해소되면 김해~헬싱키 노선 취항은 핀에어가 새롭게 취항해야 할 장거리 노선의 최우선에 있다”고 언급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 “갤럭시 Z 플립5로 원신 즐기세요”

강남서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 운영

삼성전자가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로 즐기는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는 24일까지 운영되며 방문객들은 ‘갤럭시 Z 폴드5’와 ‘갤럭시 Z 플립5’로 글로벌 인기 게임 ‘원신’을 다채롭게 체험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원신 팬들을 위해 4층 전채를 다채로운 게임 콘텐츠와 체험 공간으로 구성했다. ▲ 빅스비 닐루 보이 스 체험존 ▲ 원신 게임 체험존 ▲ 닐루-감우 포토존 ▲ 미니게임존 ▲ 원신 굿즈 판매존 등을 마련했으며, 방문을 원하는 고객은 삼성 강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입장할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원신 게임 체험존은 ‘갤럭시 Z 폴드5’로 원신을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게 구성됐다”며 “새롭게 업데이트된 원신 4.2 버전의 모든 캐릭터들을 최고 레벨 상태로 즐길 수 있



지난 8일 삼성 강남 ‘원신 프리미엄 라운지’의 ‘원신 굿즈 판매존’을 방문한 고객들/삼성전자

다”고 설명했다.

원신 굿즈 판매존에는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원신 신규 굿즈 11종과 60여종의 상시 굿즈를 판매한다. 3층에 위치한 케이스 커스텀 스튜디오에는 6종의 원신 스페셜 케이스가 판매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24일까지 삼성 강남에서 ‘갤럭시 Z 폴드5(256GB/512GB)’와 ‘갤럭시 S23 울트라(1TB)’를 구매하는 선착순 1,000명에게 ▲ 20만원 상당의 갤럭시 스토어 쿠폰팩 ▲ 원신 닐루 스페셜 UX테마 ▲ 빅스비 닐루 보이 스 사용권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허정윤 기자

조직재정비 선포... “AI사업 등 집중, 기업가치 성장시킬 것”

카카오 컨퍼런스콜

카톡 오픈채팅 결합 AI봇 출시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 개선
카톡로컬, 연내 카카오 맵 결합
“강화된 중장기 주주환원 도입”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가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한 가운데 컨퍼런스콜에서는 주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조직 재정비를 선포했다. 최근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데다 외형은 커졌지만 수익성은 떨어졌기 때문. 이에 미래 먹거리인 AI(인공지능) 사업 등에 집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겠다는 전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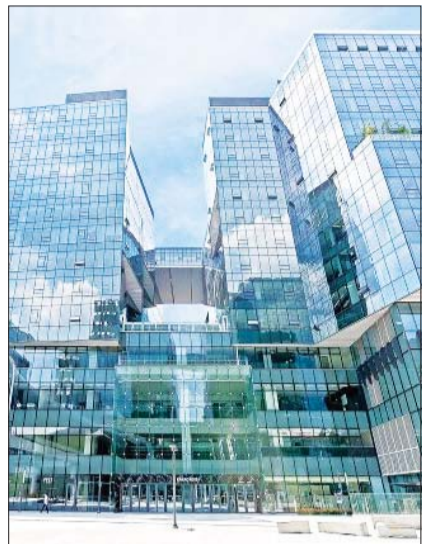
홍은택 대표는 9일 열린 2023년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을 통해 “최근 카카오 주가 상황에 대해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의 올 3분기 실적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악화됐다. 매출은 2조160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6.3% 증가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다만, 영업이익 140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다. 광고와 커머스 사업의 견조한 성장에 외형은 확장했으나 AI(인공지능) 투자 확대와 일회성 인건비 증가로 영업비용 부담이 커진 영향이다.

◆사회적 책임 통합 “조직 재정비·택시 수수료 개선”

최근 카카오는 SM 시세조정 의혹과 카카오택시 독과점 문제로 규제 당국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그룹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흔들림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은택 대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적인 뉴스들로 카카오 주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카카오 판교아지트. /카카오

“의혹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어 느덧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됐다. 성장과 함께 그만큼 커지는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다시 고민해 조직적인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택시 수수료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현재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 택시로부터는 수수료를 받는다고 없고, 그게 한 90% 된다”라며 “가맹택시에서 받는 수수료가 표면적으로는 20%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기사가 부담하는 수수료 규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빌리티의 택시 수수료가 복잡한 체계가 체계로 돼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고 13일 택시 4단체, 가맹택시연합회 5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하고 간담회를 시작한다”라며 “수수료 체계와 가맹 구조 여러 가지를 원점에서 놓고 이제 토론과 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성 개선 집중 “주주환원 및 AI·로컬 서비스 강화”

카카오는 또 신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인공지능(AI) 콘텐츠봇을 결합한다. 홍 대표는 “빠른 시일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결합된 AI 콘텐츠봇을 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AI봇이 큐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소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마이크로 버티컬 AI로 정의하고 이용자에게 유용한지, 추가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비즈에서는 로컬 서비스를 강화해 커머스 사업에서 본격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요기요와의 제휴를 통해 카카오톡 비즈니스 솔루션을 강화했는데, 요기요를 이용하는 30만 중소형 로컬 파트너들을 카카오 광고 생태계로 편입시켜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 대표는 “3분기 카카오톡에는 친구 탭의 동네 소식과 오픈 채팅의 로컬 탭이 출시되면서 이용자와 주변 가게 사장이 만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났다”며 “연내 이 서비스들은 카카오 맵이라는 로컬 서비스와 강결합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서비스간 시너지가 극대화되고 비즈니스 기회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카카오는 매년 별도 잉여 현금흐름(FCF) 5%를 현금으로 배당했고, 지난 2년간 누적 배당금액은 4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발행 주식 수의 1.4%인 4224억원 규모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 올해엔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계획된 주주 환원 범위의 최상단인 별도 FCF의 30% 수준 주주 환원을 검토한다. 내년에는 강화된 중장기 주주 환원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홍 대표는 “최근 카카오 주가 상황에 대해서 경영진은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중장기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성장시키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먼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인공지능(AI) 콘텐츠봇을 결합한다. 홍 대표는 “빠른 시일 내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결합된 AI 콘텐츠봇을 출시, 검증의 과정을 거치려고 한다”며 “AI봇이 큐레이션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소비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마이크로 버티컬 AI로 정의하고 이용자에게 유용한지, 추가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대한항공, 고마쓰·아오모리 정기편 운항

日 노선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대한항공이 일본 고마쓰와 아오모리 정기편 운항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복항으로 대한항공은 일본 노선을 모두 되살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대한항공은 오는 12월 28일부터 인천~고마쓰 노선 운항에 이어 내년 1월 20일부터 인천~아오모리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 인천~고마쓰, 인천~아오모리 노선은 각각 화·목·토 주3회 운항한다.

고마쓰 공항은 일본에서 매력적인 여행지로 꼽히는 이시카와현에 위치한다.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아름다운 바다 경치를 감상할 수 있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리는 곳으로 유명



대한항공 보잉737-8.

해 스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아오모리는 관광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숨은 보석’이라고 불리는 일본 소도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시라카미 산지와 산리쿠 후코 국립공원에서 대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넥슨, 신임 대표이사에 이정현 대표 내정

내년 3월 공식 선임 예정

넥슨은 9일 자사의 신임 대표이사로 이정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정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2003년 넥슨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20여 년간 근무해 온 넥슨 베테랑으로, 2014년 사업본부 본부장, 2015년 사업총괄 부사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넥슨코리아 대표이사로 선임돼 풍부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이정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넥슨코리아 대표이사 취임 이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넥슨코리아 매출액 연평균 성장률(CAGR) 19%를 달성하고,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메이플스토리 M’, ‘블루 아카이브’, ‘데이브 더 다이머’ 등 다수의 신작을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등 안정적인 리더십을 선보였다.

이정현 신임 대표이사 내정자는 “넥슨을 다음 세대로 이끌어갈 역할을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넥슨의 강력한 가상 세계는 전례 없



는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 넥슨의 글로벌 운영 및 개발 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신작 개발과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넥슨의 헌신은 넥슨이 세계를 무대도 한 번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회사가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성장을 위한 궤도에 오른 시점에 글로벌 대표이사라는 자리를 넘겨받게 되었는데,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글로벌 타이틀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글로벌 성공작이 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작 개발에 대한 투자로 넥슨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넥슨 신임 대표이사는 내년 3월 중 주주총회 및 이사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식 선임되며, 이정현 대표의 뒤를 이을 넥슨코리아 신임 대표이사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현 오웬 마호니 넥슨 대표이사는 이후 넥슨 이사회에 남아 고문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SKT, 저전력·고효율 서버로 5G망 고도화

에릭슨엘지·델·AMD와 업무협약
전력 소비 최대 30% 수준으로 절감
서버 공급 기간 확대 등 구축 예정

SK텔레콤은 에릭슨엘지, 델 테크놀로지스, AMD와 함께 ‘5G 코어(교환기)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SKT 등 4사는 5G 코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해 델 테크놀로지스의 신규 서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5G 코어의 전력 사용량을 최대 30% 수준 절감 ▲안정적 네트워크 운용을 위한 서버 공급 기간 확대 ▲클라우드 기술 기반 네트워크 운용 기술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SKT는 저전력·고효율의 ‘델 파워엣지 R7615 서버’를 도입한다. 해당 서버 도입은 AMD 4세대 에픽 프로



SK텔레콤은 ‘5G 코어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을 체결한 후 고상봉 델 테크놀로지스 telco 비즈니스그룹 CE(전무), 이종훈 SKT 인프라 엔지니어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세서 기반의 x86 서버를 5G 네트워크에 적용한 최초 사례다. 에릭슨엘지는 델 파워엣지 서버에 대한 5G 코어 장비 조기 도입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았다.

델 테크놀로지스와 AMD는 델 파워엣지 서버와 통신 소프트웨어간 개발 호환성을 지원하고, 서버에 대한 통신장비 적합도 기준인 네트워크 장비 구축 시스템(NEBS) 표준 인증을 추진

할 예정이다.

이종훈 SKT 인프라 엔지니어링 담당(부사장)은 “4사간 글로벌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당사 네트워크 시스템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플레이어와의 상호 협력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이익 202억 달성

전년 동기 대비 286% 증가

네오위즈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한 2023년 3분기 실적은 9일 발표했다.

네오위즈의 3분기 매출은 1175억원, 영업이익은 20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7%, 286%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성장했다. 신작 ‘P의 거짓’이 매출을 견인했다는 평이다.

PC/콘솔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548억원이다. 이미 10월에 누적 판매량 100만 장을 돌파한 ‘P의 거짓’이 매출을 견인했다. P의 거짓 판매 비중은 콘솔 및 스팀 디지털 다운로드가 65%, 하드 패키지가 35%를 차지한다. 북미, 유럽, 일본 등 해외 판매량이 90% 이상 집중됐다. 글로벌 시장에서 약진이 두드러지는 대목으로, ‘P의 거짓’의 글로벌 흥행에 따른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최빛나 기자



지역별 선착순
특허공법으로 **즉석에서** 제작 완성하는
AMAS장비 무상지원



내 발의 형태와 아치/족궁에 딱 맞추는

AMAS 즉석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연기 인생 반세기,
탤런트 김경하



탤런트 이경영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쑥~쑥
AMAS 즉석
어린이성장깔창



발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는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백화점, 목표주가 줄하향... 소비위축 '직격탄'에 실적 악화

현대백 목표주가 7.5만원으로 낮춰 3분기 매출액 전년비 26.8% 줄어
신세계백 목표가 24만원까지 하락 면세점 실적 회복 예상보다 더딜 것

소비 위축의 직격탄을 맞은 백화점의 목표주가가 낮아지고 있다. 면세점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백화점 부문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향후 실적 개선도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됐다.

9일 증권업계는 백화점들의 목표주가를 잇달아 낮췄다. 현대백화점 목표주가는 7만5000원까지 낮아졌고, 신세계백화점 백화점 목표주가는 24만원까지 떨어졌다.

가장 큰 이유는 3분기 실적 악화다. 현대백화점의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8% 줄어든 1조42억원, 영업이익은 19.8% 줄어든 740억원으로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백화점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액은 2조60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3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9% 줄었다.

KB증권은 백화점 산업 성장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KB증권 박신애 연구원은 "고정비가 급증한 여

파를 피하지 못한 가운데 4분기 들어서 면세 산업에 대한 투자 심리마저 악화했다"며 "백화점 산업은 2021~2022년 고성장 시기가 지나고 다시 저성장 국면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 주영훈 연구원 역시

"예상과 비교해 부진한 백화점 수익성을 고려한 실적 추정치 변경 및 업종 밸류에이션 하락에 따라 밸류에이션을 9.4배에서 8.5배로 조정한 것이 목표주가 하향의 주된 근거"라며 현대백화점 목표주가를 7만7000원으로 낮췄다.

신세계백화점 역시 실적 개선 모멘텀

이 뚜렷하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IBK투자증권 남성현 연구원은 "소비 경기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부진해 백화점 기존점의 성장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면세점 실적 회복이 예상보다 더딜 것"이라며 "신세계인터내셔널 등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도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췄다.

하나증권 역시 신세계에 대해 비우호적 소비 여건과 면세점 중장기 성장 가시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기존 30만원에서 26만원으로 조정했다.

하나증권 서현정 연구원은 "백화점은 수도광열비,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이익모멘텀 회복 기준 기준점 성장률 임계치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고물가·고금리 등 비우호적 소비 여건과 면세점 중장기 성장 가시성에 대한 우려는 실적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증권사, 핀테크 기업과 '로보어드바이저' 선점 돌입

KB증권 AI 투자일임사와 맞손
MTS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

신한투자증권 관택과 업무협약
'프라이빗뱅커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AI)투자일임, 퇴직연금 등의 운영 서비스로 로보어드바이저가 주목받으면서 증권사들이 이 분야의 시장 선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핀테크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에 나서는 등 관련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과 어드바이저의 합성어로 AI가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개인의 투자 성향을 반영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운영하는 자산 관리 서비스다.

KB증권은 AI 투자일임 기업인 디셈버앤컴퍼니, 파운트 등과 손잡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에서 AI 투자일임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했다.

최근 KB증권은 지난해 디셈버앤컴퍼니와 협력해 선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편, 원화로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던 기존 방식에

서, 달러화로도 글로벌 ETF와 미국 개별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편된 서비스는 연금저축 운용도 가능해 노후 대비 및 연말정산을 위한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KB증권은 투자처를 찾지 못한 고객의 예수금을 AI가 자동으로 투자자 성향에 맞춰 ETF에 투자할 수 있는 '파운트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관택과 투자일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하나증권도 자동 투자 서비스인 '프라이빗뱅커(PB)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관택과 진행했다.

이외에도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향후 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퇴직연금과 ETF 등에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적용했다.

미국 고금리와 글로벌 전쟁 등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분산투자를 진행해 증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축소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일임 서비스 계약자 수는 총 14만5954명으로, 지난해 말(11만4000명) 대비 약 28% 증가했

다. 같은 기간 일임 운용금액은 2572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AI 기술 발달로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전망이다. 글로벌 회계·컨설팅법인인 PwC는 로보어드바이저 시장이 2022년 2조5000억 달러에서 2027년 5조9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분야에 대한 증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의 협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증권사의 계좌가 필요한 구조"라며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어 증권사와 핀테크 기업들이 협업하는 사례는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토권증권, 투자자 보호·자본시장 혁신 위한 제도 절실"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

장기적·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 명확한 규정 필요

토권 증권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이뤄지려면 조속한 제도화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빨리 실행에 옮기고 많이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Change! - STO 디지털 대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토권 증권을 통한 혁신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제도 설계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토론회는 토권증권이 가져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계의 역할 변화를 살펴보고, 토권증권 시장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금 토권 증권 발행 유통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정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권증권 토론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과제인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금융 체계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디지털 길을 열어가는 상황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증권성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전에는 증권성 규제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면, 투자자들은 증권으로 투자한 것을 모를 수 있고, 시장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사라졌다"며 "이러한 변화의

주된 이유로는 증권성 문제가 없는 가상자산 투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등의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알트코인도 증권성 문제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감하게 증권성을 인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글·사진=원관희 기자

NH투자증권, '한국형 RE100' 가입

점진적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NH투자증권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RE100(K-RE100)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K-RE100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탄소중립 프로젝트의 한국형 제도다. 기업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를 위해 2021년부터 시행됐다.

NH투자증권은 올해 K-RE100 이행 방안으로 신재생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 IT 기업인 해줌(Haezoom)과 함께 진행하였다. REC를 구매하면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 실적 역시 인정받을 수 있다.

K-RE100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구매, 직접 전력 거래 계약(PPA), 녹색 프리미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분투자, 자체 건설 등을 통해 이행할 수 있다.

이번 가입은 NH투자증권이 견고한 ESG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범농협 그



NH투자증권이 K-RE100에 가입했다.

/NH투자증권

룹 일원으로서의 ESG 경영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이다. NH농협금융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며 농협금융의 2050년 탄소중립비전을 선포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협약인 넷제로은행연합(NZBA), 탄소회계금융협회(PCAF), 과학기반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 탄소배출 정보 공개 프로젝트(CDP) 등 4대 협약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 ESG 경영의 글로벌 스탠다드 확립을 위해 국제협약 가입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NH투자증권 역시 향후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벤처투자, 하반기 회복세 가속... 2차전지·반도체 등 분야 확대

중기부, 3분기 투자액·펀드결성 동향
올 3·4분기까지 투자액 7조6874억
1.8조 → 2.7조 → 3.2조 등 증가세
“21·22년 제외시 역대최고 수준 예상”

벤처투자가 하반기로 갈수록 회복 조
짐을 보이고 있다.

투자가 일부 업종에 집중된 현상도
완화되고 있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
성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4
분기까지 벤처투자금액은 7조6874억원
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과 신
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의 투자 실적을 모
두 포함한 액수다.

3분기까지 누적 벤처투자금액은
2019년 5조4463억원, 2020년 5조4110
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10조8679억

(벤처투자 현황)

(단위:억원, 건, 개사)

구분	'19 (1~3분기)	'20 (1~3분기)	'21 (1~3분기)	'22 (1~3분기)	'23 (1~3분기)
투자금액	54,463	54,110	108,679	102,126	76,874
창업투자회사 등	31,189	28,925	53,153	54,372	36,952
신기술금융사 등	23,274	25,185	55,526	47,754	39,922
투자건수	3,922	4,142	5,701	5,857	5,072
창업투자회사 등	2,744	2,780	3,886	4,116	3,438
신기술금융사 등	1,178	1,362	1,815	1,741	1,634
구분	'19 (전체)	'20 (전체)	'21 (전체)	'22 (전체)	'23 (전체)
투자금액	75,278	80,962	159,371	124,706	해당없음

원)과 2022년(10조2126억원)에는 10조
원을 훌쩍 넘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과
2022년은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투자
가이레적으로 급증했던 시기였다”면서
“올해 3분기까지 투자금액은 2020년의

연간 실적(약 8조1000억원)에 근접하
고 있는데 21·22년을 제외하면 올해 투
자액은 역대 최고 수준에 해당할 것으
로 보인다”고 전했다.

올해의 경우 분기별 벤처투자액은 1
조7822억(1분기)→2조7091억(2분기)

→3조1961억원(3분기) 등으로 점차 증
가세다. 신기술금융사를 제외한 창투자
사의 월별 투자실적도 1월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다.
2021년과 지난해의 경우 비대면, 바
이오 등 코로나 관련 분야에 투자가 집
중됐다면 올해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다테크 및 국가첨단전략
산업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전기,
기계, 장비, ICT제조 등의 투자 비중이
늘고 있다.

한국의 벤처투자는 미국, 유럽 등 주
요 지역에 비해서도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게 중기부의 분석이다.

올해 3분기 현재 투자액은 달러 기준
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했다. 반
면 같은 기간 미국은 -39%, 유럽은 -
47%, 이스라엘은 -62% 등 감소하는 등
한국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스

페인, 스웨덴 등 유럽 전 지역의 투자액
을 합산한 수치다.

한편, 올해 3분기까지의 벤처펀드 누
적결성액은 8조4482억원을 기록했다.

통상적으로 벤처펀드가 4분기에 가
장 활발하게 결성되고, 모태펀드 1차 정
시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조합들의 결성
도 4분기 중 완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
려하면 연말까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
라는게 중기부의 관측이다.

이영 장관은 “올해 3분기 벤처투자
실적은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
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투자심리 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 CVC와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돕고, 스
타트업코리아펀드 및 민간 벤처모펀드
와 같은 벤처투자 금융재원을 두텁게
마련하는 등 필요한 정책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통과돼야”

김기문 회장 등 5개 기업단체장
기재위원장에 ‘협조요청서’ 전달

중소기업계가 ‘기업승계 세법개정
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협
의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선 김기문 중기중앙회
장을 비롯해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
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
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조
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
기업단체장 5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
해 ▲중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확
대(5→20년) ▲중여세 과세특례 저율과



(왼쪽부터)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기문 중기중앙
회장,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세(10%) 구간확대(60억→300억원) ▲
사후관리업종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
류→대분류) 등 내용을 담은 기업승계
관련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회장은 “작년에 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

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으나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일부 보완이 필
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업승
계 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기업승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동반위
호텔신라와 ESG지원 협약
“지속가능한 공급망 조성”

동반성장위원회와 신라호텔이 지속
가능한 공급망 조성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동반위는 9일 호텔신라와 ‘2023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
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텔신라는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하고 동반위의 중소기
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한 후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
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동반위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
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동반위 명의
의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반부패·청렴 경영 강화한다

KAI, 감사 전문성 제고 ‘맞손’
내부통제시스템 강화할 것 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한국항공
우주산업(KAI)과 함께 기관 청렴 경영
에 나선다.

중진공은 KAI와 9일 오전 경남 사천
KAI본사에서 ‘감사활동 및 반부패·청
렴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
황임동 KAI 윤리경영지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은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 협력체
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자체감사기
구의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
됐다.

또한, 양 기관은 공공기관 감사 전

문성 강화 및 사회적 책무 이행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력채널 확대 ▲반부패·청렴문화
개선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 ▲자체감사 사례 분석 및 감사 관
리 지표 공유를 통한 내부통제 강화활동
등을 추진한다.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는 “이번 업
무협약을 통해 자체감사기구의 전문
성 제고와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높은 수준의 반부패·청렴체계 구축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국민에게 신
뢰받는 중진공으로 거듭나겠다”고 밝
혔다.

/김승호 기자

중견기업, 기술교류 등 중동 진출 속도

사우디, 카타르등과 합작사 설립

중견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에 속
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태경그룹, C
TR(씨티알) 등 회원사가 지난달 22일
사우디아라비아 경제사절단 공식 일정
인 ‘한-사우디아라비아 투자 포럼’ 등
에서 사우디·카타르 정부 및 현지 기업
과 합작 회사 설립, 기술 협력 및 공동
프로젝트 추진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
고 9일 밝혔다.

대통령 중동 경제사절단에는 총 24개
중견기업들이 참여했다.

기초 소재·무기 화학 전문 태경그룹
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화청(SW
CC)과 고순도 마그네슘 생산을 위한 해
수 담수화 농축수 활용 업무협약을 체
결했다.

SPC그룹은 중동 프랜차이즈 분야
갈라디 브러더스그룹과 파리바게뜨
중동 진출을 위한 조인트벤처 설립 업
무협약을 체결하고 2조 달러 규모의 할
탈 시장 공략을 위해 10년 내에 중동 12
개 국가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 CTR은 사

우디아라비아 투자부(MISA)와 ‘친
환경 자동차 부품 합작 회사 설립을 위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자
동차 부품 공장 건립 등 친환경 모빌리
티 제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협력키
로 했다.

발전기자재 전문 비에이치아이는 사
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비에이치아이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협력회의’ 6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발
전 플랜트 구축 프로젝트에 주요 발전
기자재 공급자로 참여한다.

중진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사우
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비롯해 다양한
기타급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중동 시장
은 건설, 제조, 소재, 식품, 바이오 등 중
견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모든 산업 분야의 거대한 시장이자 기
술 혁신의 중요한 시험대”라면서 “다양
한 업종 중견기업간 협력 시너지를 제
고하고 신성장 동력 발굴 및 해외 진출
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국회는 물론 외국 정부
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유진그룹 동양, 재활용 IT 기자재 기부

데스크탑 등 비영리IT지원센터 기부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사용하지 않는
IT 기자재들을 활용해 환경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동양은 최근 ESG사업의 일환으로
쓰지 않는 IT 기자재들을 비영리IT지
원센터에 기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전달한 물품은 데스크탑, 모
니터, 프린터 등으로 기존 IT 기자재
들은 비영리IT지원센터에서 점검 및
수리를 거쳐 새로운 IT 기기로 업사이
클링 됐다. 새롭게 만들어진 IT 기기들

은 비영리IT지원센터의 나눔IT기증프
로그램을 통해 공익단체에 전달할 예정
이다.

동양은 이번 기부활동으로 약 65t의
탄소저감에 기여했다.

동양 관계자는 “디지털 자원의 선순
환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는 동시에 건
강한 사회를 위해 힘써 주시는 공익 및
비영리 단체들을 지속해서 지원할 예
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ESG활동
들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힘쓰겠
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농식품부, 빵·우유 등 물가 잡는다

28개 품목별 담당자가 '밀착 관리'

비상경제·물가관계장관회의

농식품부, '농식품 수급상황실'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엄중 관리
농축산물 외 9개 가공식품 추가 물가 상시점검·안정 선제 대응 모색

정부가 장비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농식품 물가 관리를 직접 챙기고, 특히,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이나 우유, 과자 등 9개 가공식품별 담당자를 신규로 지정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물가안정책임관인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의 결 물가 관계장관회의에서 각 부처 차관이 물가안정책임관이 돼 소관 품목 물가 안정을 책임지고 현장 중심 물가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발표에 대한 후속 조치다.

농식품부는 올해 6월부터 국제 원자재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식량정책실장을 상할실장으로 운영중인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이번엔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앞으로는 신선 농축산물 외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



우유 원재료인 원유(原乳) 가격 상승으로 인해 흰우유, 발효유, 가공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연달아 오르고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며 우유를 재료로 하는 빵·과자·아이스크림 등의 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밀크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3일 서울 소재 유통매장에서 각종 유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뉴시스

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등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을 포함해 농식품부가 전담자를 지정해 관리하는 품목은 28개로 늘었다. 각 품목별 담당자는 소비자단체·업계와 소통 체계를 가동해 물가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차관을 중심으로 농식품 수급상황실과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물가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장·차관 중심 현장 점검과 소비자·업계 소통을 강화해 물가 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회의에서 "농축산물 가격은 10월 하순 이후 대체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기상 악화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이 변수"라며 "가공식품·외식도 연말까지 추가 인상 가능성은 낮으나 유가 상승 등 대외여건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식품부 차관인 저를 물가안정책임관으로 하고 그동안 식량정책실장이 운영하던 '농식품 수급상황실'을 차관 직속으로 격상해 농식품 물가를 보다 엄중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며 "우선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농식품 품목에 대해 전담자를 지정해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권익위,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개선 권고

보도-횡단보도 경계턱 낮추고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 재정비

교통약자 안전을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이 횡단보도 쪽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용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며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높은 경계턱, 미비한 점자블록 등에 따른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다. 최근 3년간 횡단보도 경계턱 관련 사고 접수 민원은 3805건, 점자블록 관련 사고는 4129건에 이른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분석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 수렴,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통해 교통약자의 보도 통행 시 주된 불편 원인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

련했다.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있었으나 지난해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이 휠체어나 키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쪽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최소 유효 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보도 위 점자블록 설치장소·방법을 재정비해 점자블록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하도·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블록을 설치하고 점자블록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장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재부

내년부터 다국적기업에 '최저한세' 시행

국제조세조정 개정안 입법 예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고자 세계 주요국이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가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간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에 앞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시 다른 국가에 추가로 과세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제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은 이 같은 내용에 합

의한 바 있다. 현재 140여개 국가이 행체계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을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적용대상은 연결 재무제표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1조 원가량) 이상인 다국적기업 그룹이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200여 곳이 해당될 전망이다. 과세액은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로 과세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업부, '위법 주유소' 내달부터 공개

석유가격 안정 위해 6000곳 점검
오피넷, 저렴한 주유소 정보 제공
부정수급 등도 앱 지도에 공개 계획

정부가 주유소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연말까지 전국 6000곳 이상 주유소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한 주유소 정보는 내달부터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공개된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9일 오후 서울에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기관과 함께 석유 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 회의는 12월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주유소 현장 점검 실시현황을 살피는 등 석유가격 안정 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유4사와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가 참석했다.

중동정세 불안으로 급등했던 국제유가는 11월 들어 지난 7월 수준인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 또한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국민 물가 부담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다.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L)당 1745.8원으로 전주 대비 17.8원 하락했다. 경유는 전주 대비 8.6원 떨어진 1675.9원으로 집계됐다. 5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 내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국민들의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12월까지 추가 연장했다.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25%(205원), 경유는 37%(250원) 내렸다.

아울러,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운영하며 가격안정 정책 실효성을 점검 중이다. 또 주유소 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통해 지금까지 약 3000개 이상 주유소를 점검했고, 연말까지 총 6000개 이상의 주유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

보를 제공하고 있고, 12월부터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 주유소 정보를 앱 지도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한-UAE(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타결(10월 14일)에 따라 내년부터 UAE에서 수입되는 원유에 대한 관세가 인하돼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만큼 정부는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민생부담 완화를 위해 정유업체도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나라살림 적자 70兆... 총수입 50兆 줄어

올 1월~9월 기준 발표

올해 들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70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수입이 전년보다 50조 원 넘게 줄면서 정부가 전망한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2조 원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1~9월 누계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조9000억 원 감소한 436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제수입과 세외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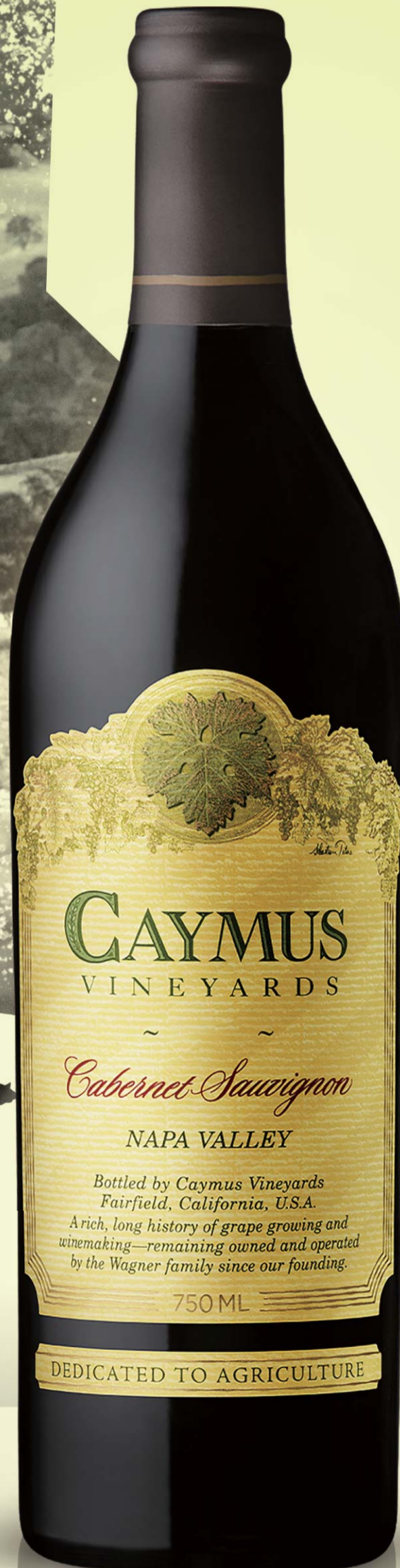
'총지출'은 68조5000억 원 줄어든 467조5000억 원을 기록했다. 예산은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22조3000억 원 감소했다. 기금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이로써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가 31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4000억 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 전월과 비교해 4조6000억 원 만큼 악화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살림살이를 가능하는 지표다.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당초 예측치에 비해 12조4000억 원 더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월 세입·세출 여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가 계속 바뀐다"며 "현재로서는 연말 관리재정수지 악화 또는 개선을 확정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나파 카버네 소비뇽의 제왕 케이머스



NARA
CELLAR

※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서울지하철 파업, 민주노총만 참여... 인력감축 철회 등 '이견'

경고파업에 한국노총 불참
“존중하지만 참여 안 하기로”
공사 협상 수정안 설득 못해

서울교통공사의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9~10일 진행되는 지하철 경고 파업에 불참했다.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이날 긴급 공지를 통해 경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사 노조는 크게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산하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로 나뉜다. 이들은 연합교섭단을 꾸려 전날까지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통합노조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경고 파업을 존중하지만, 통합노조는 참여하지 않기로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통합노조가 빠지면서 이번 시한부 파업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9일 서울 성북구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 파업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조는 이날 첫 차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경고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1

에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만 남게 됐다.

앞서 공사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지난 8일 오후 3시부터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만나 막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11월 9~10일 경고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사 노사는 인력감축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사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까지 정員 1만6367명의 13.5%인 2212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무리한 인력 감축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감축안을 철

회하고 771명을 채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공사는 협상에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은 설득하지 못했다. 노조는 “최종적으로 공사는 인력감축, 안전업무 외주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파업을 진행한다.

출근 시간대는 100% 운행률을 유지하고, 출근 시간대를 제외한 평일 운행률은 1~4호선은 평균 65.7%, 5~8호선은 평균 79.8%다. 공휴일 운행률은 1~8호선 모두 50%다.

시는 노조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한다. 이용인원이 많은 2, 3, 5호선에 비상대기열차 5대를 추가 투입해 퇴근시간대 혼잡도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와 공사는 파업 미참여자, 협력업

체 직원 등 1만3500명을 동원해 지하철 수송 기능을 유지하고, 서울시 직원 124명을 역사 근무 지원 요원으로 배치해 혼잡도를 관리할 방침이다.

출퇴근 시간대 시민 이동 지원을 위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한시간 연장(오전 7~10시, 오후 6~9시)하고, 단축차량과 예비버스 등 566대를 추가로 투입해 1393회 증회 운영한다.

실시간 대중교통 정보는 120 다산콜센터나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파업이 시작되더라도 서울시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하고 시민이동을 지원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는 한발씩 양보해 조속한 합의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학부모 설문 편파문항... “긍정적 답변 유도”

교육부, 2028 대입개편안 후폭풍 사격세 “상대평가 성적표기 등의 등 특정 응답 유도해 문항 구성 조사”

학부모 10명 중 7명이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는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를 두고 ‘특정 응답을 유도한 문항’에 따라 조사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2028 대입의 향방을 확정 짓는 중요한 논의에 당사자 및 국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의지가 있느냐”며 “이 시안이 확정 시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 교육 고통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격세),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등 전국 48개 교육·시민단체가 9일 이런 우려를 담은 의견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내신 평가 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개편 시안은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처음 적용된다.

2028년 대입개편안이 발표되자 일각에서는 오는 2025년 도입될 고교 학점제와 맞지 않는 데다 공정 평가와도 거리가 멀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대입 개편안 시안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혼란 진화에 나섰지만,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체들은 교육부가 밝힌 설문조사가 객관성이 떨어졌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교육부가 학부모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답변이 나오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사격세 관계자는 “교육부 설문지 문항을 보면 ‘이러한 경우, 고교 1학년은 내신경쟁이 심해지고, 2학년과 3학년은 성적 부풀리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고교 전학년에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결과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라며 “이는 상대평가 성적표기에 대한 동의를 직접적으로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격세는 “국가 기관이 대입이라는 중차대한 정책을 설계하면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구성해 조사하고, 이를 국민의견 수렴 결과라고 소개한 것”이라며 “답은 정해져 있고 국민은 대답만 하라는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시민단체는 학생들이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인해 심리·정서 문제 발현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교 3년 내내 ‘상대평가’ 결과를 병기하면

학생 정서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 사격세, 전국전문상담교사노조는 지난달 25일부터 3일간 전문상담교사 20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자 98.1%가 ‘학업 경쟁과 부담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만나본 적 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놨다. 응답자 76%는 이처럼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학생들의 심리·정서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봤으며, 전문상담교사 42.7%는 해결책으로 ‘대학 서열화 해소’를, 18.1%는 ‘대입 절대평가’를 제시했다.

사격세는 “교육부가 지난달 10일 발표한 ‘고교내신 5등급 상대평가’ ‘수능 상대평가 현행 유지 및 통합형 과목 체제 개편’ 등은 고교학점제 무력화, 사교육 폭증, 경쟁교육 고통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편안을 철회하고 과도한 대입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야기하는 고교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달 학부모 순회 설명회를 이어간 뒤 오는 20일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

경기교육청,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역대 최고 1조4463억 예산 편성

경기도교육청이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인 1조4463억원을 편성했다.

도내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에 따른 콩나물시루 학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번 예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심의 통과여부에 귀추가 쏠린다.

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4463억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내역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본예산보다 5130억원 증가한 수치다.

도교육청은 임태희 교육감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중앙투자심사 학교 신설 100% 통과로 37개교 신설을 추진하는 등 알맞은 시기에 학생배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그 결과 전년 대비 예산편성 대상 신설학교 수가 32개교나 증가했다. 또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1조4463억원을 2024년 본예산안에 편성했다. 이는 본예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배치를 위한 신·증설 외에도 과대·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신증설 사업비 407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지난 7월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 372회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순천향대, ‘글로벌 다문화 축제’ 성료

재학생·유학생 간 유대감 증진 마련

순천향대학교는 8일 교내 향설광장 일원에서 ‘2023-2학기 순천향글로벌다문화 축제’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재학생과 유학생 간의 유대감과 융화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19개국 유학생들이 ▲한국(미니붕어빵, 공기, 제기차기) ▲미국(말발굽 토스 게임, 카우보이 게임) ▲프랑스(전통 바게트 및 잼 만들기 체험) ▲중국(찾앗달걀, 서예 필묵 체험)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Palov 전통 볶음밥 만들기, 나무인형 만들기) ▲멕시코(전통사

후 Loteria, Calaverita 만들기) 등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16개 부스를 운영하며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국가별 글로벌 빌리지(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이 시간대별로 부스에 배치돼 한국인 재학생에게 직접 ▲글로벌 클럽 ▲원어민 회화 수업 ▲언어·문화 교류 프로그램 설명과 해외 파견 및 교내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부스도 운영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16년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듣는다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

서울시는 ‘오세훈표’ 장기전세주택 공급 16주년을 맞아 거주자 수기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16개 작품을 수기집으로 엮어 배포한다고 9일 밝혔다.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로도 잘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오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2007년 8월 발산2단지 입주를 시작으로 지난 16년 동안 서울 시내에 총 3만

3973호가 공급됐다.

시는 “장기전세주택은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중형(50~85㎡) 평형을 주로 공급했다”며 “무주택 중산층으로 대상을 넓혀 임대주택에 대한 낙인효과를 개선하는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는 지난 8~9월 ‘장기전세주택 거주경험 수기공모전’을 실시했다. 총 88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이 중 16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김현정 기자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옮겨 놓은 듯... “오감체험 공간 조성”

Q 르포

더현대 서울 ‘H빌리지’

‘해리의 꿈의 상점’ 테마 조성
곰인형 등 한정판 에디션 선보여
“오브제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을 그대로 옮겨왔네.”

현대백화점이 9일 서울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연말을 맞이해 크리스마스 시즌 ‘H빌리지’를 연출했다.

‘해리의 꿈의 상점’이라는 테마로 꾸러진 ‘H빌리지’는 크리스마스 시즌 마을 별로 꾸며지는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하기 충분했다.

현대백화점은 타백화점과 달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내부에 선보인다. 올해는 더현대 서울 5층의 3만300㎡(1000평) 규모 사운즈 포레스트 공간에서 현대백화점 16개 전 점포를 상징하는 상점과 시장을 6000개의 조형 등으로 활용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실내에 조성한 크리스마스 연출 중 국내 최대 규모다.



H 빌리지 골목 이미지

이 곳에 들어서자마자 11m의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눈길을 끌었다. 골목길 콘셉트를 살려 우체국, 케이크샵, 호두까기 인형, 그릇공방, 베이커리, 약세서리 등의 존도 마련했다.

현대백화점은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콘텐츠에서 나아가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설명이다.

정민규 현대백화점 영업전략실 디자

인 책임은 “크리스마스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연출한 것이 특징이다. 작은 오브제 하나까지 직접 만들고 디자인했다. 정말 심혈을 기울였다. 고객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사운즈 프레스라는 휴향 자체 개발까지 진행했다”고 말했다.

H빌리지에 입장한 고객들이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적인 골목길과 크리스마스 트리

(시각), 캐롤(청각), 보들보들한 해리인형(촉각), 달콤한 크리스마스 케이크(미각), 더현대 서울의 시그니처 향으로 숲의 향기를 머금은 ‘사운즈 포레스트’(후각) 등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정민규 책임은 “호두까기인형 스텝에는 호두까기인형 500개가 들어 있고 현대의 PB 제품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게 재디자인해 선보였다. 베이커리, 그



H빌리지 내 대형 트리 /최빛나 기자

릇, 액세서리, 초콜릿 가게, 오르골 상점 등을 판매하는 모든 공간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그만큼 디테일에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외에 현대백화점이 직접 개발한 크리스마스 에디션도 눈길을 끌었다. 해리 곰인형, 키링, 에코백, 뱃지 등이다.

H빌리지는 오는 12월31일까지 운영되며,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PC삼립-H마트, 파트너십 체결 “美 등 해외시장 적극 공략”

美 베이커리 시장 확대 논의
신규 유통채널 상품공급 참여

SPC삼립이 미국 최대 아시아인 유통 채널인 ‘H마트’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베이커리 시장 확대에 나선다.

SPC삼립은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퀸즈파크에서 ‘SPC삼립-H마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H마트 관계자들과 미국 베이커리 시장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K-푸드 열풍으로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 한국 베이커리를 알리고자 하는 양사의 니즈가 부합해 추진됐다.

SPC삼립은 H마트와 베이커리 제품을 공동 기획해 미국 H마트 채널을 통해 유통 판매를 추진하고 향후 푸드 제품까지 판매 상품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H마트 신규 해외 유통 채널에 전략적 상



지난 3일 서울 청담동 퀸즈파크에서 진행된 ‘SPC삼립-H마트 전략적 사업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SPC그룹 허희수 부사장(왼쪽)과 H마트 브라이언 권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PC그룹

품공급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SPC삼립 관계자는 “글로벌 대형 유통 채널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베이커리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글로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국내 최고의 베이커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트렌드를 이끌 제품을 선보여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쿠팡이츠서비스, 전기이륜차 구매·렌탈 할인

쿠팡이츠서비스가 모든 배달파트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전기이륜차 구매와 렌탈시 최대 2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제휴 혜택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쿠팡이츠서비스는 전기이륜차 이용 확대를 환경 친화적 배달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것은 물론, 배달파트너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블루샤크코리아는 자가충전 인수형과 BSS(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공

유형 모델에 대해 구매시 최대 20%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할부형 상품 구매시 블루샤크에서 이용가능한 20만 포인트를 추가 증정한다.

이누리는 10% 구매 할인에 최저 월 30만원에 이용 가능한 전기이륜차 렌탈 서비스를 동시에 선보인다.

무빙 역시 다양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며 12개월 이상 렌탈 이용시 최대 100만원 캐시백 혜택을 돌려준다.

/최빛나 기자

롯데, ‘잡카페’ 연다... 35개 계열사 참가

27일·30일 개최... 참가신청 접수

롯데가 오는 27일과 30일 각각 서울 롯데월드타워와 롯데백화점 광복점에서 대규모 채용 상담 행사인 ‘2023 롯데 잡카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롯데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각 계열사 인사 담당자가 참여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잡카페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 잡카페는 단순히 채용 상담을 넘어 그룹의 비전과 미래 성장 방향을 홍보하는 그룹 차원의 채용 브랜딩 행사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커리어 페스티벌’을 테마로 채용 및 직무 상담에 롯데 계열사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더해질 예정이다.

인사 실무 담당자와 함께 밀접하게 롯데 계열사를 이해할 수 있는 채용 상



담에는 롯데의 35개 계열사가 참여한다. 식품·유통·관광·화학 등 기존 사업군들과 바이오·헬스케어 등 롯데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 분야에 대한 인사 실무 담당자의 실질적 조언과 계열사의 비전 및 조직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다.

참가 신청을 원하는 취업준비생은 8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롯데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가능하다.

/최빛나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이랜드이츠, 신입·경력사원 공개채용

애슐리, 로운 등 계열사 매장 근무

이랜드이츠가 2023년 하반기 대규모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이랜드이츠는 오는 22일까지 애슐리, 자연별곡, 로운, 피자몰, 리미니, 테루, 반궁, 스테이크어스, 프랑제리 등 이랜드이츠의 계열사 전국매장에서 근무할 인원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외식업 및 고객 서비스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정을 보유했다면 누구든지 학력, 나이, 성별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채용은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

합격자 발표 과정을 거치며, 최종 합격자는 전국매장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 전형을 통해 선발되는 최종 합격자는 체계적인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식 전문 경영자로서의 성장 발판을 제공받게 된다. 해당 프로그램은 4년간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며,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 지식과 핵심 역량 중심으로 업무 경험을 쌓게 된다.

자격조건과 우대사항 등 자세한 정보와 지원방법은 이랜드 채용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대한민국 ‘쓱데이’

SSG닷컴·W컨셉 4000종 상품 초특가 판매

SSG닷컴과 W컨셉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쓱데이’ 온라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먼저, 사전행사 ‘쓱데이 어워즈’에서 공개한 대표 단독상품의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 미술품에 디지털 보증서 ‘SSG 개런티’를 적용한 ‘아르미앙서울 갤러리 큐레이션’, 프리미엄 핼케어 프로그램 ‘반려견 건강검진권’, 감홍·시나노골드 등 5개 사과 품종을 반값에 구성한 ‘사과 드림 박스 3kg’을 만날 수 있다.

쓱닷컴 핵심 카테고리인 ‘온라인 장보기’에서는 선착순 15% 할인쿠폰을 발급해 대표 인기 상품 4000여종을 초특가에 판매한다. 패션, 뷰티 등 ‘라이프스타일’ 분야에서는 브랜드사와 공동 기획한 단독 상품을 준비했다. ‘톰스벨 스테이’ 바티자켓, ‘DNSR’ 패딩점퍼 등을 단독 판매한다.

/최빛나 기자

신세계L&B 전국 와인앤모어 매장 할인

신세계L&B는 신세계그룹의 통합 쇼핑 축제 ‘2023 대한민국 쓱데이(이하 쓱데이)’에 참여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와인앤모어 46개 매장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L&B는 쓱데이 기간 와인앤모어에서 프리미엄 상품 ▲샤또 무똥 로칠드 2011 ▲샤또 마고 2017 등 프랑스 보르도 1등급 와인과 일본 산토리의 최고급 블렌디드 위스키 ‘히비키 하모니’는 500명, 미국 프리미엄 버번 위스키 ‘1792 풀 프루프 싱글 배럴’을 한정 판매한다. 아울러 데일리 와인 브랜드 ‘G7’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신원선기자

매년 60만명 걸리는 두경부암... 음주·흡연 시 발병률 35배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흡연 시 남성 2배·여성 3배 높아
도수 높은 술일수록 위험도 증가
증상엔 구강·혀 궤양, 이물감 있어



으로 새롭게 진단 받은 환자는 5666명이다. 2016년 5080명 대비 최근 5년간 12% 상승한 수치며, 2011년 4320명 대비 최근 10년간 31% 상승했다. 전체 두경부암 유병자수도 4만6694명에 달했다.

두경부암에 걸리면 음식을 먹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두경부암의 주요 위험인자는 음주와 흡연이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일석 교수(사진)는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남성의 경우 약 2배, 여성의 경우 약 3배 구강암 발생률이 높다”며 “음주력이 있는 경우에도 1.7배 구강암 발생률이 높는데, 술은 많은 양을 마실수록, 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실수록 위험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흡연자에게 이 같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한다면 반드시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아야 한다. 실제 2020년에 발생한 두경부암 환자를 보면 50대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50대 이상이 85%였고,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0%로 가장 많았다.

박 교수는 “두경부암은 조기에 발견되면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구강이나 혀에 궤양이 생기거나 목소리 변화, 이물감, 목에 만져지는 덩어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후두내시경을 받음으로써 두경부암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한정판 제품 선봬

‘홀리데이 컬렉션’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고급 화장품 브랜드 ‘설화수’가 설화수만의 예술적 감각을 담은 한정판 제품들을 선보인다.

설화수는 ‘2023년 홀리데이 컬렉션’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설화수는 이번 행사를 ‘당신의 의미 있는 순간에 설화수가 함께합니다’라는 주제로 기획했다. 설화수를 상징하는 호박색과 은색이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포장에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번 행사 한정판 제품은 ‘나의 첫 설화수 세트’와 ‘자음생크림 세트’로 나뉜다. ‘나의 첫 설화수 세트’는 윤조



설화수가 ‘2023 홀리데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에센스와 백삼팩, 자음생크림을 포함하고 있다. ‘자음생크림 세트’에는 자음생크림 본품을 비롯해 윤조에센스, 자음생세럼, 순행클렌징폼 등이 있다.

이번 행사는 전국 백화점 설화수 매장 및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온라인몰에서 진행된다. /이청하 기자

구강, 인두, 후두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두경부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흡연과 음주가 가장 높은 위험인자로 꼽히며, 음주와 흡연을 함께 할 경우 두경부암 발병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5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가 늘어나는 연말연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9일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0만명 이상의 새로운 두경부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최근 발표된 ‘2020년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 두경부암

이화의료원, 맞춤형 ‘골반저 물리치료’ 제시

국내 대학병원 첫 ‘골반재활치료실’ 비뇨기계 수술 후 특화된 재활 필요 40년 이상 된 치료법... 美 등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이 골반저 기능장애를 치료하고 나아가 골반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을 환자 개인 맞춤형으로 제시한다.

‘골반저 기능장애’는 여성의 골반에 위치한 골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거나 수축하는 증상으로, 허벅지 주위에 찌르는 듯한 통증과 압박감은 물론, 육신거리는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만성골반통증 등을 통해 골반저 기능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각종 비뇨기계 수술 후 재활과정에서는 환자의 골반저 기능에 특화된 재활이 필요하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9월 국내 대학병원 최초로 이대서울병원이 ‘골반재활치료실’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이대서울병원이 선보이는 ‘골반재활치료실’의 특징은 골반저 물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골반저 물리치료는 방광, 자궁, 질,



지난 9월 11일부터 서울 마곡에 있는 이대서울병원이 ‘골반재활치료실’을 열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직장 등 주요 장기를 떠받치고 있는 해먹 모양의 골반저근육을 강화시키거나 이완해 준다. 나아가 체간의 움직임을 개선하고 요실금 등 하부 요로계 증상을 치료한다.

아울러 미국 물리치료사협회에서 주관하는 골반건강물리치료 교육과 산전 산후 물리치료교육을 수료한 물리치료사팀의 골반저기능부전에 대한 전문 물리치료도 있다.

골반저 물리치료는 40년 이상 적용돼 온 치료법으로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주로 연구하고 있다. 요실금, 골반장기탈출증 치료에서 초기 1단

계 진료 지침으로 제시될 만큼 효과가 입증됐고 치료의 부작용 또한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하나 이대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이대서울병원의 ‘골반재활치료실’을 통해 선진국의 치료체계를 국내 비뇨의학 분야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기준점을 제시하겠다”며 “국내 최초로 도입한 비뇨심리통증척도 검사와 함께 잘 치료되지 않는 비뇨기계 만성 기능 이상의 원인을 면밀히 감별하고 최적의 진단과 치료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종근당건강, ‘CKD 블랙프라이데이’ 진행

팔사 목주름 크림 등 최대 66% 할인

‘팔사 맞집’으로 알려진 종근당건강의 화장품 브랜드 ‘씨케이디 개런티드’가 역대 최대 할인 행사를 선보인다.

씨케이디 개런티드는 오는 16일까지 자사 온라인 공식몰에서 ‘종근당건강 CKD 블랙 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 9일 밝혔다. 레티놀콜라겐 저분자 300 팔사 목주름 크림과 팔사 리프팅 세럼 세트를 최대 66% 할인한다.

씨케이디 개런티드는 이번 행사를

목주름과 팔자주름으로 고민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기획했다. 목주름은 거북목, 버섯목 등 아침부터 밤까지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현대인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주름이다. 팔사를 활용해 목주름을 관리하는 방법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는데 ‘씨케이디 개런티드’의 제품은 팔사와 크림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다.

레티놀콜라겐 팔사 목주름 크림은 지난 10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33만 개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청하 기자

동국제약, ‘마이핏 V’ 팝업매장 확대 운영

방문 고객 대상 최대 63% 할인

동국제약이 소비자들과의 소통에 나서고 있다.

동국제약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마이핏 V 멀티비타 이문 128’ 팝업 매장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63%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해당 매장은 현대백화점 천호점, 현대백화점 신촌점,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등이 있다. 앞서 지난 2일까지는 ‘더현대 대구’에서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동국제약이 맞춤형 설계한 12종의 비타민과 8종의 미네랄 성분을 담고 있는



동국제약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지역별 백화점에서 ‘마이핏 V 멀티비타 이문 128’ 팝업 매장을 운영할 예정이다. /동국제약

‘마이핏 V 멀티비타 이문 128’은 현재 누적 판매량 150만병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동국제약은 마이핏 V, 마이핏 B, 마이핏 S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 3000억 규모 자사주 매입

이틀 만에 대규모 추가 매입 결정

셀트리온그룹이 상장 계열사 중 유일하게 올해 자사주 취득 신고금액을 1조원을 넘게 기록하고 있다.

셀트리온그룹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양사 통합 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5295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을 마무리한 지 이틀 만의 대규모 추가 매입 결정이다.

셀트리온은 오는 10일부터 2024년 2

월 8일까지 추가로 131만4286주(취득 예정 금액 약 2070억원)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오는 10일부터 2023년 12월 17일까지 132만주(취득 예정 금액 약 930억원)를 각각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취득분을 포함하면 올해 2월부터 셀트리온은 총 누적 574만2688주(약 8764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총 누적 566만5000주(약 3757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신고하게 된다.

합산하면 양사가 올해 신고한 총 자사주 매입 결정 규모는 약 1조2500억원

에 달한다.

한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은 순항 중이다. 지난 10월 23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합병안이 가결된 가운데 오는 13일까지 행사 가능한 주식매수청구권도 양사의 현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격을 크게 상회하면서 최소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양사가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분기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업 성장에도 성과를 드러내면서 합병 성공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청하 기자

CJ제일제당, 해외 ‘간편소스’ 시장 공략

‘백설 덮밥소스’ 6종 출시

CJ제일제당 백설이 해외 현지의 맛을 앞세워 간편소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백설 덮밥소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카파오우쌈’, ‘크림치킨 마크니 커리’, ‘마파두부’, ‘코코넛 게살 푸팟퐁 커리’, ‘스팸 김

치’, ‘트리플고기짜장’ 덮밥소스 6종으로 구성된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 1분만 돌려 밥 위에 부어 먹으면 된다.

지난 4월 CJ제일제당이 백설을 요리 솔루션 브랜드로 리뉴얼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심플쿠잉(간편 조리)’ 제품이다.

/신원선기자 tree6834@

문제는 창의력이야!



Hervé Tullet

에르베 툴레展 색색깔깔 뮤지엄

2023.11.03 ~ 2024.03.0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주관
이다

창의예술포럼

후원

AMBASSADE DE FRANCE EN CORÉE

LÜK 루크박스

협력

my art

씨씨씨씨

씨씨씨씨

홍보 마케팅

(주)사아컴퍼니

SK E&S-천안시,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 맞손

‘천안 그린도시 조성’ MOU 체결
2027년까지 350대 수소버스 도입

SK E&S와 천안시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수소버스 보급을 통해 ‘천안 그린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SK E&S는 9일 충남 천안시청에서 천안시와 ‘천안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천안시는 2027년까지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350대의 수소버스를 도입하고, 안정적인 수소버스 운영을 위해 SK E&S와 충전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SK E&S는 올해 말부터 인천 액화수소플랜트에서 최대 연 3만톤 규모의 액화수소를 생산해 수소버스 연료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천안시 내 버스 공영차고지를 중심으로 액화수소충전소구



(왼쪽부터)소유섭 SK E&S 부사장과 박상돈 천안시장이 9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천안 그린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수소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 E&S

축·운영도 추진한다.

천안시는 SK E&S가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부지 인허가와 임대 제공에 협력하게 되며 수소버스 보급 확산을 위한 각종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SK E&S는 “현재 천안시에 운행 중

인 시내버스, 전세버스 중 기업 통근버스로 주로 활용되는 전세버스는 일반 승용차 대비 온실가스 30배, 미세먼지는 43배 이상 배출하는 경유버스가기 때문에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소버스는 충전시간이 전기버스

보다 짧고 1회 충전시 주행거리가 약 600km이상에 달해, 고정된 노선을 활용하는 시내버스나, 장거리 노선에 활용되는 전세버스 등에 활용되기 적합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정부의 친환경 정부정책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시내버스를 점차적으로 수소·전기버스로 전환하고, 친환경 그린도시 천안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유섭 SK E&S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천안시가 수소 대중교통체계에 기반한 친환경 그린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충청남도 지역 내 수소버스를 포함, 수소상용차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두산에너지빌리티,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창원상공회의소와 함께 창원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9일 두산에너지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8일 창원 본사 게스트하우스에서 ‘창원특례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관련 행사를 열고 1억5000만원을 창원시에 전달했다.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왼쪽)과 홍남표 창원시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르노코리아-동아대, 인재양성 산학협력

르노코리아와 동아대학교는 8일 부산시 사하구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에서 미래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해우 동아대학교 총장(왼쪽)과 이해진 르노코리아 제조본부장이 협약식 체결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동국대, 재학생 학부모 1000만원 기탁

동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인 김대암 우진제약 대표가 동국대에 1000만원을 기탁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장학위원회는 8일 학내 분관 5층 건축위원회 회의실에서 ‘베트남 유학생 지역 미래불자 육성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동국대



한국가스공사, LnG 장학증서 수여

한국가스공사는 LnG(Leading&Growing)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고 160명의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2012년부터 전국의 저소득 대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1337명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한국가스공사

부음

▲성기순씨 별세, 성승용(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2진료부원장·정형외과 과장)씨 부친상 = 9일,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02-2227-7500

▲권전복씨 별세, 김재현(뉴스1 사회부 법조팀장)씨 외조부상 = 9일, 부산 보훈병원 장례식장 103호, 발인 11일 오전 5시30분, 051-601-6785

이창용 한은 총재, 국제결제은행 회의 참석

세계경제·금융시장 상황 논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한국은행은 9일 이 총재가 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10일 출국해 16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12~13일에 열리는 세계경제회의, 전제총재회의 등에 참석해 회



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의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BIS이사자격으로 BIS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에도 참석한다.

14일에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에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한국타이어, 전기차 VOC 분석 시스템 개발

(고객 반응)

전기차 전용 타이어 경쟁력 강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기반을 둔 전기차 고객 반응(VOC) 분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전용 타이어 부문 기술 혁신 및 품질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국타이어는 전기차 타이어에 맞는 품질관리 체계 확립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아마

존웹서비스(AWS), 스노우플레이크와 손잡고 올해 초부터 전기차 관련 고객 반응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한국타이어가 구축에 성공한 시스템은 생성형 AI의 최대 한계점으로 꼽히는 정보 왜곡 현상을 획기적으로 줄여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AWS의 베드록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에서 수집한 방대한 양의 고객 반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양성운 기자 ysw@

조항목 대표, 임직원 자녀 수능 응원

(NS홈쇼핑)

쿠키, 마카롱 등 응원선물 전해

NS홈쇼핑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지난 8일 임직원과 임직원 수험생 자녀에 응원선물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응원선물 전달은 수험생 자녀를 돌보고 뒷바라지 해온 임직원을 격려하고 수험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NS홈쇼핑은 8년째 수능 응원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대표이사 명의의 응원선물에는 쿠키, 마카롱 등 간



NS홈쇼핑 조항목 대표이사 임직원들에게 수능 수험생을 응원하는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NS홈쇼핑

식 외에도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 카드가 담겼다. /최빛나 기자 vitna@



11월 7일 창립 64주년 기념 축하 행사에 참여한 OCI홀딩스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일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서진석 OCI홀딩스 사장 /OCI 홀딩스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 더 따뜻하게”

OCI홀딩스 창립 64주년

출범 후 첫 창립 기념 행사
‘사랑의 1004 운동’ 등 소개

OCI홀딩스가 창립 64주년을 맞아 전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창립 기념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OCI홀딩스는 1959년 11월 8일에 설립됐다.

9일 OCI홀딩스 출범 후 첫 창립 기념 행사에서는 서진석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새단장을 마친 사무공간에서 창립 축하를 겸한 다과 미팅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팅에서는 창립의 의미를 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기획한 ‘사랑의 1004 운동’ 행사를 소개하며 기업과 임직원들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랑의 1004 운동’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임직원 참여 봉사기금이다. 매월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한 구좌(구좌당 1,004원) 수만큼 급여에서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조성되며, 여기에 회사 지원금을 더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고 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포상과 함께 회사의 생일인 11월에 맞춰 11월 생일자에 대한 축하 행사를 통해 임직원간 결속을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OCI홀딩스 이우현 회장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이 때 주변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영민하게 대응하며 회사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각자 맡은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함께 이뤄 나가자”고 밝혔다.

/허정운 기자

오늘의 날씨

11월 10일 (금)
음력: 9월 27일

수도권 날씨
1 ~ 8 °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7, 동두천 -1/8, 가평 0/9, 파주 -1/7, 서울 1/8, 양평 1/9, 인천 2/6, 수원 1/7, 용인 1/7, 평택 1/9

백령도 4/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송지승 교수의 경제 읽기

선진 자본시장의 기관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장기 안정투자집단으로서 주가급등락으로부터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행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기관투자자에게 그런 역할이란 연목구어에 가까운 기대가 아닐까? 사실 개인과 비슷한 단기 거래행태를 일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은 이들 기관투자자에게 적지 않은 특혜를 주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기관투자자에게 주어지는 특혜와 이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주문에 대한 계좌확인절차가 개인투자자와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일반 개인은 매도거래주문 시 고객계좌에 매도주문 수량만큼 잔고가 충분한지 시스템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계좌잔고 내에서 주문이 시장에 전달된다. 그런데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의 불법공매도 발생은 이들의 매도주문에 대한 계좌확인 절차가 개인투자자 처럼 준

수되지 않고 보유잔고 수량 이상의 매도주문이 시장에 전달되고 있음을 말한다. 이처럼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 계좌확인 절차의 상이는 끊임없는 불법공매도 발생에서 보듯이 공정성과 당위성 등의 측면에서 그 존속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

둘째, 기관투자자 중에서 2015년부터 증권사에 대해 시장조성을 위한 유동성 제공자로서 공매를 허용하고 있는 조치를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의 공매도 금지 기간은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증권사는 유동성 제공자로서 매도-매수호가의 제공 차원에서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가 제한 없이 가능하다.

그런데 증권사의 유동성 제공 차원의 공매도는 미국과 같이 딜러 또는 스페셜리스트가 존재하는 딜러십 시장(dealership system)에서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 역할을 행하고, 매도자에 대해서는 매수자 역할을 해야 하므로, 거래를 위한 재고(inventory)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다르게 한국의 경우에는 거래체결이 매도자와 매수자의 호가를 연결해주는 공개경쟁매매방식(call auction market system)으로서 증권사의 재고가 필요하지 않다. 증권사에

대해 유동성 제공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매우 빈번한 대형주를 대상으로 한 유동성 제공자가 과연 필요한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셋째, 기관과 개인의 차입 공매도 사이의 제도적 불공정성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주식대차에 의한 공매도를 할 수 있으며, 개인은 거래증권사의 대주에 의한 공매도만 가능하다. 주식대차와 대주 사이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는 개인의 대차시장참가 제한은 물론이고 상환기간의 차이와 거래종목의 한정 등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식대차는 거래종목 수가 매우 많지만 대주는 거래증권사의 보유 상품분으로 한정되어 있어 거래종목수가 매우 제약된다. 이런 차이는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대해 불평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혜택 중 정당성을 갖기 어려운 과도한 특혜는 개선되어야 한다. 해당 분야 연구를 수행했던 필자로서 만기 6개월 정도면 공매도 순기능인 차익거래나 헤지거래의 목적 달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자본시장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은 자본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얼까? /원광대 경영학과 교수

오늘의 운세 11월 10일 (음 9월 27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집안의 중심에서 밀려나도 내주어야. 48년생 기억력이 없어지는 대신 통찰력이 생긴다. 60년생 나를 위해 웃고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자. 72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노력하자. 84년생 직장에게 즐거운 일이 생긴다.

소 37년생 친구의 조언으로 문제가 해결. 49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곧 좋은 일이 있겠다. 61년생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73년생 살짝 돌아서 가는 길이 여유를 준다. 85년생 몸도 마음도 피곤한 날이니 충분히 쉬어라.

호랑이 38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으니 마음을 편하게. 50년생 송사에 휘말릴 수 있으니 말조심. 62년생 말이 잘 나오는 것도 실력. 74년생 여의주를 넣었으니 성과가. 86년생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새로운 일을 시작.

토끼 39년생 원하던 일이 손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들어온다. 51년생 바다 건너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63년생 사방에 적이 있어 일의 성사가 어렵다. 75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려면 된다. 87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니 보람이 있다.

염 40년생 망설임이 의외로 좋은 결과를. 52년생 부정에서 벗어나고 심신의 안정으로 명상을 권유해준다. 64년생 티끌은 모아도 티끌에 불과하니 헛고생. 76년생 우물거에서 송농 찾지 마라. 88년생 개나리 진달래가 만발하니 내 마음도 봄.

뱀 41년생 가족이라도 금전거래는 하지 마라. 53년생 뜻은 원대하나 현실은 만만치 않으니 더 노력. 65년생 해산물을 먹을 때 주의. 77년생 기다리면 곳에서 반가운 소식이 온다. 89년생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천년을 가는 사랑이 있다.

말 42년생 가슴이 답답하니 술로 달래 본다. 54년생 현상 유지만으로도 오늘은 행복한 하루. 66년생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이니 자신감을 가져라. 78년생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명확한 것이 없다. 90년생 후배가 치고 올라오니 마음이 불편.

양 43년생 돼지띠와의 거래가 순조롭다. 55년생 가까운 친구 병문안 갈 일 있다. 67년생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마라. 79년생 원하던 곳에 서류를 제출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91년생 인간은 휴먼이니 지닐 수 있는 감정이 기계와는 다르다.

원숭이 44년생 서남쪽으로부터 온 친지의 도움을 받는다. 56년생 날씨가 변화무쌍하니 우산과 비옷을 챙겨가라. 68년생 원만한 대인관계가 소독으로. 80년생 좋은 말로 투자를 속삭이는 사람을 경계. 92년생 동부서주 뛰다니니 소득도 늘어난다.

닭 45년생 도량이 넓은 모범을 준다. 57년생 초지일관하여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69년생 하찮은 걱정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81년생 집 나간 말이 가족을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은 날. 93년생 교양과 개념 없는 언행을 보이지 말아야.

개 46년생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58년생 집 짓는 일을 당장은 못 해도 마음을 접지 말고 꾸준히 계획. 70년생 연인의 슬픔은 깊게 담아 두지 마라. 82년생 멀리 있다 해서 있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94년생 책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다.

돼지 47년생 땅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아 비옥해진다. 59년생 우연한 성공도 결국은 꾸준한 노력에서. 71년생 희망은 꿈대로 이루어진다는데. 83년생 이혼하고 웃어본 날이 언제였는가. 95년생 살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같지 않음이 더 많아 되니.

새마을금고, 비단옷 입고 고향 가길



김정산 (금융부)

최근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비리가 잇따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의 한 금고직원 은 수억원대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의 한 금고는 부실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이 사인서를 제출한 지 한달이 지나지 않은 만큼 실망감은 배가 된다.

대학생시절 여름방학이면 가방에 옷가지를 챙겨 경상남도 산청군으로 내려갔다. 숙식이 가능한 펜션에서 한 두달 아르바이트 하면서 용돈을 벌었다. 당시 마을에서 사린 어른들과 매년 전화로 안부를 물으며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취

직을 하고 금융부에 배치받았다고 하니 제일 먼저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꺼냈다. 새마을금고는 산청의 자랑이라고 했다. 근래 고향 민심이 뒤바뀐 모양새다. 새마을금고에 관해 물으니 한숨부터 내쉬었다. 지역의 자랑이 어느새 '비리의 온상'이 돼버렸다고 역정을 냈다. 옛말에 '비단옷 입고 고향 간다'는 말이 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성공해서 되돌아간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대로 고향에 가면 외면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새마을금고가 민심을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두 가지 과제를 잡음 없이 마쳐야 한다. 우선 경영혁신위원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8월 경영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7월 백그라운드 사태 이후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체질개선이 요구되는 만큼 내

부통제방안, 지배구조 혁신, 예금자 보호 강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등장해야 한다. 중앙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영혁신 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오는 17일 최종 결과물을 공개할 예정이다.

또 한가지는 내달 치러지는 차기 중앙 회장 선거다. 새마을금고 출범 60주년만에 치러지는 직선제 선거인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유력 후보군의 윤곽은 아직이지만 업계에서는 김인 회장 직무대행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간혹 사람들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미화된다'는 말을 한다. 하지만 지금 새마을금고에 필요한 것은 공정한 과정에 입각한 결과다. 조합원과 시민들로 하여금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회복만이 새마을금고 역사가 있는 고향 사람들의 자부심을 되찾을 수 있는 지름길이다.

/kimsan11@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명당 여행

현대 사회현상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여행을 떠난다. 장소도 국내 해외 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데 풍경 좋은 곳이 우선일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접할 수 있는 맛집도 있어야 한다. 사진이 잘 나오는 곳은 최고의 인기를 누린다. 여행을 즐기는 시대에 재미있는 테마 여행 한 가지를 제안해본다면 이름하여 명당 여행이다. 전국에는 풍수 명당으로 알려진 곳이 지역별로 곳곳씩 있다.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면 나들이를 즐기는 것은 물론이고 명당 보는 눈도 키울 수 있다.

명당 터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어떤 곳이 명당인지 궁금해한다. 그런데 실제 여행을 다니게 되면 유명한 명당이 어떤 곳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 기회가 된다. 여행의 장점은 무엇보다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좋은 터를 거닐면 그 터를 감싸고 있는 기운이 나에게 옮겨오며 둘러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산책을 하게 되므로 운동 효과도 생긴다. 여러모로 몸이 건강해지는 게 명당 여행이다. 대표적인 명당은 이런 곳이다. 춘천의 박사마을은 터가 좋아서 박사가 술하게 배출됐다고 한다. 인근에 신승검 장군 묘도 있는데 이곳 역시 마찬가지 터이다.

강릉의 선교장은 240년간 유지된 한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전통가옥으로 유명하다. 구례의 운주루는 풍수에서 말하는 금가락지가 땅에 떨어진 곳이라고 할 만큼 알려진 명당이다. 서울에서 가까운 여주의 세종대왕릉은 조선왕릉 중에서 최고의 명당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이외에도 알려진 명당 터는 풍경이 빼어나서 볼거리도 많고 당연히 맛집도 많다. 여행 목적지로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곳을 다니면서 풍수도 배우고 자연의 좋은 기운을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이 명당 여행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마을금고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마을금고의 일과를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3	4	5	6	7	8	9
9	8	7	6	5	4	3	2	1
8	7	6	5	4	3	2	1	9
7	6	5	4	3	2	1	9	8
6	5	4	3	2	1	9	8	7
5	4	3	2	1	9	8	7	6
4	3	2	1	9	8	7	6	5
3	2	1	9	8	7	6	5	4
2	1	9	8	7	6	5	4	3
1	9	8	7	6	5	4	3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구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30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	2017년3월09일 제141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2023. 11. 22 (수) 오후 2시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

■기조강연: **하토가이 준** 한국후지필름BI 대표

■강 연: **이건복** 마이크로소프트 상무 / **김상윤** 중앙대학교 교수 / **오경석** 영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행사명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 일시 : 2023년 11월 22일(수) 14~18시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 2023 뉴테크놀로지 포럼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주제 :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혁신의 트리거

◎ 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5길 19 페럼타워 3층 페럼홀

◎ 등록 :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당일 카드결제 가능)

※ 포럼 참석 선착순 100명에게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예술을 입은 와인...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8

와인에 있어 레이블(label)은 소비자가 와인을 만나는 첫 지점이다. 생산지나 품종, 생산연도 같은 와인에 대한 정보를 말하기도 하기만 와이너리의 철학 혹은 분위기를 나타내거나 때론 와인이 자신만의 얘기를 들려줄 때도 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따라 인상이 달라지고, 또 그 자체가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를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세번째 와인인 '셰이 플랫 빈야드 피레네 쉬라즈 아티스트 레이블'은 꿈과 도전을 입었다. 프랑스 론 '시라'의 명가가 만든 호주 '쉬라즈' 와인이니 말이다.

엠 샤푸티에 에두아르 빠요(Edouard P ayot) 아시아 수출이사는 9일 이 와인의 출시에 맞춰 한국을 찾은 자리에서 "아티스트 레이블은 한국에서만 하고 있는 독특



엠 샤푸티에 아티스트 레이블 시리즈. (왼쪽부터) 엠샤푸티에 데상트 아티스트 레이블, 엠 샤푸티에 레 메이소니에 아티스트 레이블, 셰이 플랫 빈야드 피레네 쉬라즈 아티스트 레이블. /금양인터내셔널

한 프로젝트로 이전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보지 못했던 한국 시장의 성장과 매력에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며 "미학적이고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가와 인은 닮은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엠 샤푸티에는 프랑스 론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다. 대를 이어 무려 25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만큼 론과 시라 품종을 가장 잘 알고, 또 잘 만들 수 있다고 자부하

는 곳이다. 투르농은 엠 샤푸티에가 지난 1997년 호주에 세웠다. 시라 품종의 변화무쌍함을 보여주기 위한 도전이었다. 기존 호주 스타일의 쉬라즈가 아니라 서늘한 기후와 피레네 지역의 토양 등 테루아를 그대로 투영하는 샤푸티에 스타일을 구현했다.

빠요 이사는 "같은 시라 품종이라도 론은 암석 위주의 토양이라 미네랄과 입안에서 가득차는 느낌을 받는데 반해 피레네는 허브향과 신선함이 있다"며 "그럼에도 서늘한 기후조건이 비슷하고 양조과정에서 크게 개입하지 않아 모두 유연하고 우아한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엠 샤푸티에의 도전 정신을 반영해 와인에 입힌 작품은 최승운 작가의 '시작의 단면'이다. 보통 시작점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땀이 서려야 무엇이든 시작이 가능하다.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던 엠 샤푸티에의 순간이 서려있는 셈이다.

엠 샤푸티에는 와인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가치를 테루아에 대한 존중이라고 본다. 그림으로 예를 들면 이렇다. 모든 그림은 테

루아를 반영해 그대로 전하고, 와이너리는 모서리 한 쪽에 작가 사인을 하는 정도다.

아티스트 레이블 프로젝트의 첫번째 와인은 '엠샤푸티에 데상트 아티스트 레이블'이었다. 장마리아 작가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히는 캔버스 위 흠을 그대로 바른 듯한 자연적인 질감을 레이블에 녹여내 엠 샤푸티에 와이너리의 상징이기도 한 유기농, 친환경의 의미를 담았다. 초창기부터 유기농법을 도입했고, 지금은 산하의 모든 포도밭은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만 재배하고 있다.

두번째 와인은 '엠 샤푸티에 레 메이소니에 아티스트 레이블'이다. 도예가 신다인 작가와 손을 잡았다. 토양과 뿌리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조형물로 레이블을 디자인했다. 엠 샤푸티에의 자연주의적 철학을 고스란히 녹여내 흠의 생동감에서 테루아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의도했다.

아티스트 레이블에 대한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다. 첫번째로 내놓은 데상트의 경우 첫 해에 기존 대비 6배 이상 팔리더니 이제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와인이 됐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진정으로 윤리적인 태도는?”

영화는 밖에서 만났으면 얼굴에 가래침을 '뱉' 뱉고 상종 안 했을 인간들과 겸상하게 만든다. 범죄자를 증오하는 일은 쉽다. 하나 그보다 중요한 건 그가 어쩌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밝혀내는 일이다. 가해자의 행적을 추적하다 보면 그가 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 짚을 수 있게 된다.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해 그를 동정하게 만든다는 우려가 있음에도 이런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다. 대개 범죄자는 사회가 만들어 낸 것이기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뜯어고쳐 괴물의 출현을 막아야 한다.

문학평론가 신형철은 저서 '정확한 사랑의 실험'에서 영화의 태도가 윤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는 그 영화가 악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에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는 "진정으로 윤리적인 태도는, 선의 기반이 사실상 매우 허약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악의 본질이 보기보다 복잡적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선의 악'과 '악의 선'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태도"라고 말한다.

'정확한 사랑의 실험'은 신형철의 첫 영화평론집이다. 영화 '케빈에 대하여'를 다룬 평론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다. 영화는 가족과 학교 친구들을 총으로 쏘서 죽인 케빈의 과거와 현재를 찬찬히 훑는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케빈은 언뜻 보면 어느 평범한 10대 소년 같기도 하다. 그는 때때로 고마이 찢어질 듯 자지러지게 울어 양육자의 혼을 쏙 빼놓았던 영아기를



정확한 사랑의 실험
신형철 지음/마음산책

거쳐, 부모 속을 새카맣게 태우려고 작정한 것 마냥 늦게 말을 뱉 유아기를 지나, 엄마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춘기에 도달한다. 늘 엄마의 사랑이 고팠던 그는, 창조주를 영영 자기 곁에 묶어둘 묘안을 짜낸다. 케빈은 영화 속 두 명의 주인공을 제외한 조연과 엑스트라들을 전부 제거해버리기로 결심하고 이를 실험에 옮긴다. 사건 이후 사람들은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한다.

저자는 "우리가 어떤 서사의 등장인물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나 하며 '규정'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리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며 "케빈을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해버리면 이 이야기는 '날고 보니 아들이 소시오패스인' 한 불행한 엄마의 이야기가 되고 만다. 그때 우리에게 남는 건 공포와 연민의 감정뿐"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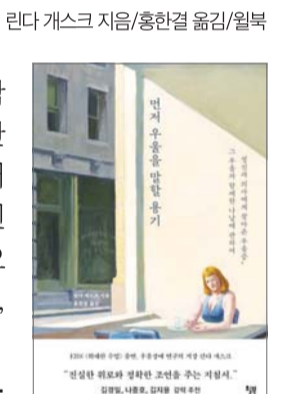
2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jk1@

먼저 우울을 말할 용기

책은 정신과 의사인 저자가 오랫동안 앓아온 자신의 우울증을 회고하는 정신의학 에세이다. 세계보건기구 고문, 세계정신의학협회 위원 등을 역임한 30여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인 저자는 자신의 우울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 병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우리는 대개 "약한 사람"으로 보일

만한 행동을 하면 약점을 잡힌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난 괜찮다"며 손을 내젓는다. 저자는 이러한 태도가 낡은 폐해가 너무 크며 친구나 가족이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잡으라고 조언한다. 환자로서 겪은 모든 것, 환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것.

296쪽. 1만8800원.



린다 캐스크 지음/홍한결 옮김/윙북

인류세, 엑소더스

지금으로부터 6600만년전 우주에서 날아온 소행성이 유카탄 반도로 떨어져 공룡이 멸종했다. 소행성 충돌로 인한 기후급변이 그 원인이었다. 소행성 충돌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양은 600~1000기가톤. 아직 놀라긴 이르다. 지난 20년간 인류가 뿜어낸 양이 600기가톤이기 때문. 그 결과 지구의 평균기온이 1.3도 상승했다. 과학

자들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2100년 지구의 기온은 6도 더 높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고작 그 정도의 온도 상승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지만 이 수치가 지구 전체의 평균 온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책은 강조한다. 지구 면적의 70%를 차지하는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서서히 오른다.

384쪽. 2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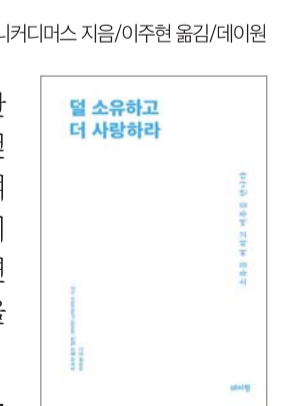
가이아 빈스 지음/김명주 옮김/김출판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미니멀리즘"이 유행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많던 "미니멀리스트"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쩌면 사람들은 미니멀리즘이란 유행을 맹목적으로 좇으며 버림의 가치성에도 취된 나머지 채움을 등한시했는지도 모른다. 책은 미니멀리즘은 "비움" 그 자체를 위한 게 아닌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생활 철학"

이라고 강조한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히 물건을 왕창 버리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닌 마음속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만들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이들이란 것이다. 정리하고 포기하는 연습. 불필요한 것들을 털어내는 기술을 알려주는 책.

472쪽. 1만7000원.



조슈아 필즈 밀번, 라이언 니커디머스 지음/이주현 옮김/데이원



▲日방위성, '자위대 군용차' 해외 유출 실태조사·방지책 연내 공표 /사진 뉴시스
▲유엔 사무총장 "민간인 사망 규모... 이스라엘 작전 잘못됐다는 방증"

▲美국무부 "블링컨, 北 도발행위·러 무기제공 규탄"
▲美 연준, 모건스탠리 자산관리 사업 부문 조사



▲美, 시리아 동부서 이란 연관 시설 공습... "우리 인력 보호 조치" /사진 뉴시스
▲G7 경쟁당국 첫 공동성명 "생성형 AI 등 반경쟁적 행위 우려"



캐릭터 등
수집용 카드 붓물
휴면카드 발생속도↑
08



Life

더현대 서울 'H빌리지'
유럽 크리스마스
옴겨 놓은 듯
L1



증류부터 숙성까지 전통 그대로 사슴계곡서 탄생한 '천상의 맛'



글렌피딕 15년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

싱글몰트 위스키 '글렌피딕(Glenfiddich)'은 영국 스코틀랜드의 프리미엄 위스키 브랜드로, '글렌피딕'이란 단어는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는 언어인 고이델어로 '사슴이 있는 계곡'을 뜻한다. 1887년 위스키를 출시한 이후 차츰 지역에서 인지도를 쌓아갔다.

1886년 창립자 윌리엄 그랜트가 위스키 성지라 불리는 스코틀랜드 스페이사이드 지역에 '윌리엄그랜트앤선즈(William Grant & Sons)' 증류소를 만들면서 역사가 시작됐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는 현재까지 5대째 가족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유일한 종합 주류 회사이며, 글렌피딕을 통해 싱글몰트 카테고리 최초로 탄생시켰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는 1887년 크리스마스에 첫 제품을 선보였다. 첫 증류 이래로 지금까지 전통적인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원액 숙성통인 '오크통'을 만드는 제작 기술자부터 증류, 숙성, 병입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몰트 마스터까지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장인정신에 입각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글렌피딕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최다 수상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글렌피딕의 증류소는 자체 병입 시설이 있는 게 특징이다. 위스키를 만드는 첫 단계부터 마지막까지 스코틀랜드의 청정수인 '로비듀(Robbie Dhu)'만을 사용한다. 마지막 병입 과정에서 알코올 도수를 40도 혹은 43도로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할 때도 로비듀를 넣는 증류소다.

글렌피딕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꼭 필요한 로비듀와 선별된 최고급 맥아는 그 어떠한 위스키에서도 느낄 수 없는 글렌피딕만의 풍부하고 개성 넘치는 맛과 향을 창조해낸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는 뛰어난 품질의 위스키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캐스크가 중요하다는 것

1886년, 스코틀랜드 증류소부터 역사 시작 첫 증류부터 지금까지 전통 생산방식 고수 청정수 '로비듀'와 최고급 맥아 사용, 풍미↑

오크통 제작 '쿠퍼리지' 고유의 맛 이어와 위스키계 혁신 '솔레라 시스템'으로 제조 세계 3대 주류품평회서 최고상 수상도

을 항상 강조했으며, 이는 오늘날 글렌피딕이 전 세계에서 전용 통을 제작하는 곳인 '쿠퍼리지(Cooperage)'를 보유한 거의 유일한 증류소 중 하나로 성장한 비결이다.

쿠퍼리지에서 오크통의 분해, 조립 및 유지보수를 맡아 책임지는 오랜 경력의 장인들이 '쿠퍼(Copper)'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위스키 풍미의 70%가 결정되는 오크통을 제작하는 업무를 담당할 만큼 뛰어난 장인정신으로 글렌피딕 고유의 풍미를 이어오고 있다.

글렌피딕은 싱글몰트 카테고리를 탄생시킨 브랜드로, 위스키 업계에서 시도하지 않은 혁신적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 글렌피딕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글렌피딕 15년'은 위스키 업계의 혁신이라 불리는 '솔레라 시스템'으로 제조되어 달콤한 꿀맛과 바닐라 향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솔레라 시스템은 술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시스템으로, 피라미드 형태로 쌓은 오크통을 관으로 연결해 위에서부터 술을 채워 숙성하는 방식이다. 이후 제일 아래 있는 오크통에서 일부를 빼 병입한 후 빠진 분량만큼의 원액을 다시 맨 위 오크통에 채우며 숙성을 반복한다.

글렌피딕은 35년간 싱글몰트 위스키를 생산한 경험과 업계 전반에서 쌓은 기술을 바탕으로 캐스크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형 수공 오크통 '솔레라 베트(Solera Vat)'를 제작했다. 솔레라 베트 시스템을 통해 만들어진 글렌

피딕 15년은 강렬하고 오묘한 맛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위스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글렌피딕 15년의 강렬한 풍미를 제대로 음미하고 싶다면 니트나 온더록스로 즐기는 것을 추천한다.

풍미뿐 아니라 세련된 보틀 디자인으로 유명한 글렌피딕 보틀은 20세기의 유명한 그래픽 디자이너 한스 솔레거(Hans Schleger)가 위스키 제조에 사용되는 3대 핵심 원료인 물, 공기, 맥아에서 영감을 얻어 획기적인 삼각형 형태로 디자인했다. 이후 글렌피딕 특유의 삼각형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병목 라인을 한층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탈바꿈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글렌피딕이 탄생한 계곡의 실제 각도를 반영해 V자로 음각 처리했으며, 계곡 중앙에 글렌피딕을 대표하는 금장의 사슴 문양을 새겨 브랜드 상징성을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글렌피딕 15년은 영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3대 주류 품평회 'IWSC(International Wine & Spirit Competition)'에서 최고상인 '골드 아웃스탠딩'을 수상한 바 있다. 균일한 밸런스와 풍미를 유지하는 특징과 함께 달콤한 허니와 진한 과일의 풍부함이 어우러져 누구나 선호하는 풍미를 가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글렌피딕 관계자는 "혁신적인 숙성 방식을 통해 만들어진 글렌피딕의 진가를 더욱 널리 알리기 위해 앞으로도 소비자들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며, 싱글몰트 시장을 선도하는 브랜드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해나갈 수 있도록 집중할 것"이라며 "싱글몰트 위스키의 선구자로서 위스키 대중화에 앞장서기 위해 글렌피딕만의 차별화된 제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글렌피딕 15년 기프트 컬렉션.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PSG 이강인, 2주 연속 리그라운드 베스트11 선정 /사진 뉴시스
▲'골드글러브' 김하성, '올 MLB 팀' 2루수 부문 후보

▲1회부터 과감히 선발 뺀 LG, 적중한 '승부수'
▲ACL 잘 나가던 K리그, 중국·동남아 원정 동반 부진



▲'KS 3차전 승기 잡아라'...LG 임찬규 vs KT 벤자민 대격돌 /사진 뉴시스
▲프로축구 경남, 김천과 '정규리그 마지막 홈경기' 앞뒤